

삶의
대서사시

정선아리랑

길라잡이

유명희

〇 〓 〇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삶의 대서사시 정선아리랑

2012년 12월 5일 아리랑이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 아이콘인 아리랑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경축합니다. 그 중에 정선아리랑은 다른 아리랑과 달리 민요적 속성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삶의 다양한 모습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우리 삶을 아름답게 이끕니다. 우리나라 아리랑의 뿌리이자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정선아리랑이 앞으로 아리랑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에 막중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 초 정선아리랑문화재단으로부터 ‘정선아리랑 길라잡이’를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 쓴 정선아리랑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선아리랑에 대한 책과 논문이 넘쳐 나고 있지만 대개는 학술적인 책이거나 노랫말을 정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정선아리랑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 등을 같이 넣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의 어느 곳을 펴서 어느 마당을 펼쳐 먼저 읽어도 상관 없을 정도로 각각의 마당은 독립적입니다. 순서대로 읽을 필요도 없으니 각자의 취향에 맞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노

랫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 노래에 대한 배경 설명 등을 이야기, 역사적 사실 등을 들어 꾸몄습니다.

무엇보다 책의 특성 상 보는 책, 읽는 책을 넘어 듣는 책을 지향했기 때문에 노래가 실린 면마다 QR코드를 두어 해당 노래를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QR코드를 만들기 위해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이 있었는데 도움을 주신 예능보유자 분을 비롯하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전공을 물어 본 사람들은 ‘왜, 어찌다가 민요를 전공하게 되었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대답은 정해졌습니다. 대학 1학년 겨울 방학에 답사를 갔는데 그때 처음 아라리를 듣게 되었고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이 책을 쓰면서 정선아리랑의 무한한 매력에 다시 한 번 매료되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벼운 안내서가 아닌 유익한 안내서가 되길 희망했으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일반적이면서 독자를 한정하여 쓴 책들이 그렇듯 정선아리랑의 깊고 풍부한 맛과 멋을 담지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정선아리랑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또 더 알고 싶게 만드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문학박사 유 명 희

한마당	아라리와 아리랑	006
두마당	노랫말로 대화하는 정선아리랑	018
세마당	춤춤하게 엮어 부르는 엮음아라리	028
네마당	시대를 볼 수 있는 정선아리랑	044
다섯마당	일하면서 부르는 정선아리랑	064
여섯마당	삶의 고난을 보여주는 정선아리랑	082

일곱마당	사랑의 노래 정선아리랑	108
여덟마당	무릉도원을 그린 정선아리랑	128
아홉마당	삶의 애환을 나타내는 아리랑고개	136
열마당	삶의 지침서 정선아리랑	144
열한마당	정선아리랑 더 알아보기	152

아라리와 아리랑

‘정선아리랑’은 ‘정선아라리’라고도
하는데요, 아리랑은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아라리는 낯섭니다.
‘아리랑’과 ‘아라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라리는 정선 지역을 비롯하여
강원도 백두대간을 따라
널리 불리는 우리 고유의 소리로서
아리랑의 모태가 되는 소리입니다.

정선군

정선군은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으로 태백산맥이 관통하는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 높고 가파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무연탄·금·구리·철·아연·납·흑연 등 지하자원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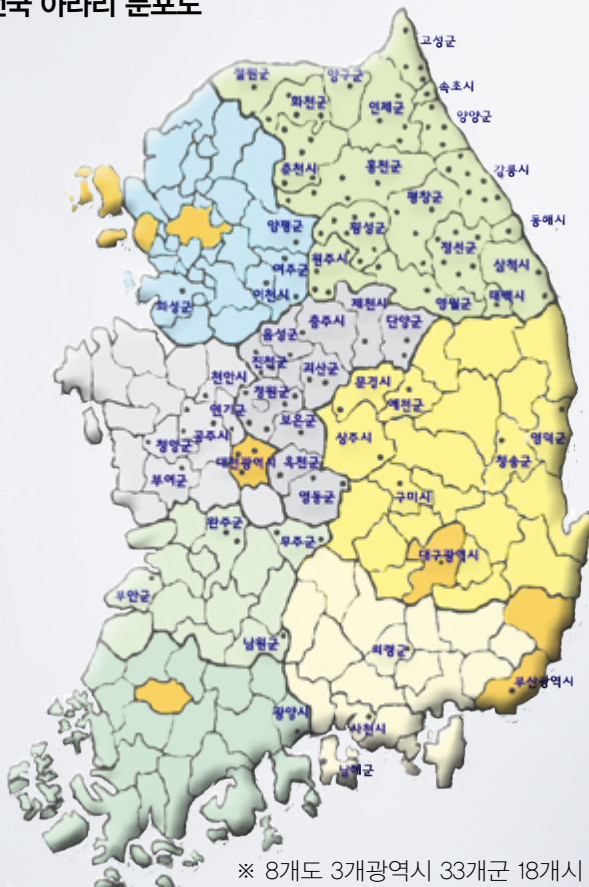
이 지역은 757년 신라 경덕왕 때부터 '정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왔고, 아리랑의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정선 지역에서 불리는 아리랑을 말합니다. 이 소리는 다른 이름으로 아라리라고도 합니다. 아라리는 정선 지역 ㉠을 비롯하여 강원도 백두대간을 따라 널리 불리는 우리 고유의 소리입니다.

아리랑이 2012년 12월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아라리는 아리랑의 모태가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로를 통해 아라리가 아리랑으로 변화되었는지 알아보까요?

전국 아라리 분포도



※ 8개도 3개광역시 33개군 18개시
총 54개 지역

[참고문헌]

강동학, 「자진아라리의 분포와 장르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민속학 제29권, 2004.
유명희, 「아라리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림대학교, 2005.
MBC, 「한국민요대전 자료 CD」, 1991~1996.

삶의 노래, 아라리

아라리는 민요입니다. 민요는 민중들, 전통사회에서는 백성들이 일할 때, 의식을 행할 때, 놀 때 부르던 소리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슬프고, 속상할 때 그 마음과 생각을 곡조와 노랫말에 실어서 부른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라리로 표현하지 못하는 생각과 감정은 없습니다.

아라리는 강원도 이외에도 경기도 동부,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어 매우 오래된 소리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는 소리로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민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는 매우 소박한 곡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강원 지역에서 누구나 부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라리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에 맞추어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일동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강원 지역에서 아라리는 누구나 부르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읊을 수 있으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부를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불리고 있는 소리, 민요, 노래인 것입니다.

☎ 토리

토리란 각 지방의 민요에 담긴 음악적 특징을 말하며, '조'라고도 합니다. 서울·경기도·충청도 민요의 특징을 경토리, 평안도 민요의 특징은 수심가토리, 경상도·강원도·함경도 민요의 특징을 메나리토리, 전라도와 충청도 일부지방 민요의 특징을 육자배기토리, 제주도 민요의 특징을 제주도토리라고 부릅니다.



수심가토리
배따라기



경토리
창부타령



육자배기토리
진도아리랑



메나리토리
정선아리랑



제주도토리
서우젓소리



아라리가 아리랑이 되기까지

그런데 이 소리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아리랑’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강원 지역에서 생겨났던 아라리가 서울 경기 지역에 알려집니다. 아라리가 서울 경기 지역에 알려지게 된 계기로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경복궁 중수입니다. 1867년에 흥선대원군은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복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전국에서 많은 일꾼들이 한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꾼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보살피 주었는데, 저녁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국노래자랑’을 펼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야말로 조선 전국 각 지역에서 소위 내로라하는 소리꾼들이 저마다의 숨씨를 뽐내며 소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드러진 소리가 바로 아라리였습니다. 정선 지역을 중심으로 널리 불리던 아라리에 서울 소리꾼들이 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약간 서울식으로 그러니까 경토리 ☎ 로 손을 봐서 만든 소리가 ‘경기긴아리랑’입니다.

영화 '아리랑'



영화 '아리랑'은 일제시기였던 1926년 10월 1일에 단상사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개봉 첫 날부터 유례없는 관중이 몰려들었습니다.

주제자인 아리랑은 조국을 잃은 민족에게 애국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아리랑'은 영화로서도 뛰어난 걸작이었을 뿐만 아니라 항일저항정신을 필름에 아로새긴 민족영화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1926년 영화개봉을 하기 전에 영화 아리랑에 대한 소식을 전한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EBS 지식
아리랑



MBC 뉴스
아리랑 영화주제가 공개



네이버영화
아리랑 줄거리

그렇다면 이 경기긴아리랑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아리랑'으로 다시 한 번 변모한 후 다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926년에 춘사 나운규는 영화 '아리랑'을 만듭니다. 일제강점기였던 그 시대에 이 영화는 우리 민족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때 이 영화의 삽입곡, 요새 말로 하자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바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리랑'입니다. 춘사 나운규는 당시 유행하던 서울경기 토리의 긴아리랑을 바이올린 악사에게 주어 서양식으로 편곡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는 막 서양 음악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라 서양식의 편곡은 세련된 느낌을 주며 새롭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탄생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아리랑을 '본조아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때 본조는 본바닥이라는 뜻으로 당시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던 아리랑이 아닌 서울 본바닥이라는 뜻입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한 여러 아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대부분의 유명한 기생들과 소리꾼들이 앞 다투서 아리랑 음반을 녹음하여 전국에 아리랑 레코드가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무형문화재

강원도 무형문화재는 강원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의미합니다. 2011년 4월 22일 현재 22건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되었고, 2건의 문화재가 지정 해제되었습니다.

지정번호	등록명	소재지	비고
1호	정선아리랑	정선군	
2호	삼척 기줄다리기	삼척시	
지정해제	강릉농악	강릉시	중요무형문화재 11~4호로 승격지정
4호	횡성 회다지소리	횡성군	
5호	강릉 학산 오독떼기	강릉시	
6호	전통자기도공	횡성군	
7호	양구 돌산령지계놀이	양구군	
지정해제	전통활쏘기	평창군	
9호	철원 상노리 지정다지기	철원군	
10호	강릉 사천 하평답교놀이	강릉시	
11호	칠정제장	원주시	
12호	칠장	원주시	
13호	나전칠기장	원주시	
14호	방짜수저장	강릉시	
15호	평창 둔전평농악	평창군	
16호	각자장	고성군	
17호	생칠장	원주시	
18호	원주 매지농악	원주시	
19호	평창 황병산 사냥놀이	평창군	
20호	속초 도문농요	속초시	
21호	대목장	평창군	
22호	영월 단종제례	영월군	



정선군
정선아리랑



삼척시
기줄다리기



횡성군
회다지소리

아라리와 아리랑의 차이점

이런 아리랑들은 공통점을 지니는데 바로 만들어진 소리, 전문적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정해진 소리라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진도아리랑이나 밀양아리랑 등은 예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의 토리에 맞게 전문적인 소리꾼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리랑들입니다. 아라리가 일하는 사람, 일반 민중들에 의해 전승되어 오래전부터 불린 것과 상황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아라리만 민요라고 볼 수 있고, 아리랑은 똑같이 민요라고 불리고 있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이렇게 정선아리랑, 즉 아라리가 우리나라 모든 아리랑의 모태, 즉 어머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은 강원도 무형문화재 1호로 지정되었고 정선 지역의 가장 큰 문화 자원입니다.

‘아라리’라는 이름이 지역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만, 이 책에서는 ‘아리랑’이라는 문화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선아리랑으로 지칭합니다. 다만 아라리가 아리랑의 뿌리라는 점은 잊지 마세요.

노랫말로 대화하는 정선아리랑

전에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을 이용하여
노래극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가능한가요?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때그때
지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노랫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래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신윤복, 〈춘의만원〉

대화를 이룰 수 있는 노랫말

냇싹대를 달달 끌고선 개구장가루 들거든
나물바구니 옆에다 끼구선 날만나러 오게



나물광지리¹ 옆에 끼고서 큰강가로 갈거니
냇싹대를 잘잘 끌고서 내뒤편아 오게



이 두 노래를 잘 들어보면 같은 내용을 남자와 여자가 따로 부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먼저 부르고 화답으로 불렀을 수도 있고요.

첫 노래는 남자가 부른 것입니다. 남자가 먼저 냇싹대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뒤따라오라고 단둘이 만나자는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노래는 여자가 부른 것입니다. 아까 노래와 상황은 같습니다. 남자는 냇시를, 여자는 나물을 캐러 가려는 상황입니다. 나물광주리를 끼고 강가에 간다고 말하면서 남자의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1. '광주리'의 토박이말



위 노래처럼 부르는 것은 보통 대상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맘에 드는 사람을 향해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이미 따로 만나는 사이일 수도 있지요. 요새로 치자면 사내 연애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그때그때 지어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노랫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래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선에 살고 있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다른 산에서 나무하던 총각과 나물뜯는 처녀가 아라리를 주고받으며 연애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정된 노랫말이 대부분인 다른 아리랑들과 정선아리랑이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라지



정선읍에서 북동쪽으로 40리쯤 떨어져 있는 아우라지 나루는 남한강 상류의 골지천과 송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두 냇물이 만남으로써 남한강은 여기에서부터 비로소 강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 이름도 여기에서부터 골지천이나 송천과 같은 ‘천’이 아닌 조양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우라지는 두 물줄기가 어우러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우라지와 비슷한 이름으로는 ‘아울지’, ‘아우지’, ‘아우내’ 등이 있습니다. 탄광으로 유명한 북한의 아오지도 두만강 지류들이 아울러서 붙은 이름이고, 유관순 열사의 만세 운동으로 유명한 충남 천안시 병천면의 아우내도 물이 아울러서 붙은 이름입니다. 한편 경기도의 두물머리도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 이어서 두 물이 만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때그때의 심정을 반영하는 노래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노랫말은 또 있습니다.

아우라지  뱃사공아 배 좀 건네 주게
싸리골¹ 울동박²이 다 떨어진 다



떨어진 동박³은 낙엽에나 쌓이지
사시장철 임그리워서 나는 못살겠네



이 노래 역시 대화를 하는 듯이 주고받는 노래입니다. 아우라지는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에 있는 강으로 구절리에서 내려오는 송천과 임계면에서 내려오는 골지천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우라지라는 이름도 ‘어우러지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두 물이 만나 어우러지는 것을 뜻합니다.

1. 정선군 여량면 유천리 송천 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1894년 동학란 때 난을 진압하려던 관군이 주둔했으며 이들에게 공급할 군량미를 저장하였다하여 ‘쌀골’이라 불리었는데, 지금은 싸리골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2. 생강나무로 봄에는 노란 꽃이 피고 가을에는 까만 열매를 맺습니다.
3. 동백

 아우라지 처녀상과 여송정^{餘松亭} 천장화



이 아우라지에는 예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이 아우라지를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서 매일매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아우라지에 살고 있는 뱃사공이 매일 이 두 사람을 배에 태워서 서로 만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비가 내려서 강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만나지 못하게 된 두 연인은 불어난 강물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게 되었지요. 바로 이때 뱃사공에게 배를 좀 건너달라며 부른 노래가 앞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노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 집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 위 노래를 부른 사람과는 달리 사랑하는 사람이 없나 봅니다. 동백조차도 감싸주는 낙엽이 있는데 인간인 자신은 외로워도 감싸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한 푸념을 노래합니다.

이렇게 정선아리랑은 하나의 노래를 한 사람이 부르면 그에 따른 노래를 바로 이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장이 살아 있는 민요의 힘입니다. 정해져 있는 노랫말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우러나 그때그때의 심정을 노래하는 것이지요.

춤춤하게 엮어 부르는 엮음아라리

정선아리랑이 그때그때의 삶을
반영한다는 말이군요.
2줄로 된 노랫말에 삶을 담아낸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단 2줄에 세상 일을 모두 담아내다니요.
2줄 말고도 더 길고 늘어지는
다른 형태도 있지요?

짧은 노래의 단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말을 춤춤하게
엮어서 부르는
엮음아라리가 있습니다.

시조

시조는 고려 말기부터 발달하여 온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입니다.
 시조의 기본 형식은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으며 4음보격입니다.
 글자 수는 시조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장의 첫째 구는 3음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초장	3	4	3	4
중장	3	4	3	4
종장	3	5	4	3

이러한 기본 형식을 갖춘 시조를 평시조라고 합니다. 평시조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로 도라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결은 간되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끊이런가 하노라

또한 2장 이상이 평시조에 비하여 긴 시조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조를 사설시조라고 하며, 특히 중장이 거의 무제한으로 길어집니다.

창내고자 창을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 배목걸새 요나큰 장도리로
 똥닥 바가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잇다감 하답담할제면 여다져 불가 하노라

춤춤하고 빠르게 부르는 율음아라리

조선 시대부터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시가 문학 중 시조 ㉠가 있습니다. 시조는 고려 말에 발생하여 조선 시대에 많이 불려졌고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는 시가입니다. 시조는 형식상 평시조와 사설시조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정선아리랑도 이와 같이 엄마와 아들 같은 관계에 있는 형식이 존재합니다.

바로 아라리와 율음아라리가 평시조와 사설시조 같은 관계입니다. 아라리는 2줄로 된 짧은 노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노래를 주고받을 때 처음에는 길게 늘어지게 불러 자신들의 마음을 내보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소리를 하다 보면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노랫말도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짧은 노래의 단조로움을 벗어나기 위해 말을 춤춤하게 엮어서 빠르게 불러 재미를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 중장이 다른 장보다 길게 늘어납니다. 율음아라리도 중간 부분이 길게 늘어납니다. ‘율다’는 것은 글이나 이야기 따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소재를 일정한 순서와 체계에 맞추어 짚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엮는다고 해서 아라리와 다르게 율음아라리로 부르게 된 것이지요.



신윤복, <기다림>

과장된 표현

엮음아라리는 박자만 빠르게 하지 않습니다. 빠른 박자에 맞게 운율도 더 섬세하게 맞추고 재미를 더하기 위해 흔히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음 노래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이 날 말다고 울치고 담치고
열무김치 소금치고 오이김치 초치고
칼로 물친듯이 똑 떠나가더니
평창 팔십리 다 못가구서 왜 되돌아왔나



이 노래의 기본적인 정서는 나를 버리고 떠나신 임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런데 다른 아라리에서는 원망으로 끝나지만 이 노래에서는 약간 비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나더니 결국 돌아왔잖아?’ 하는 느낌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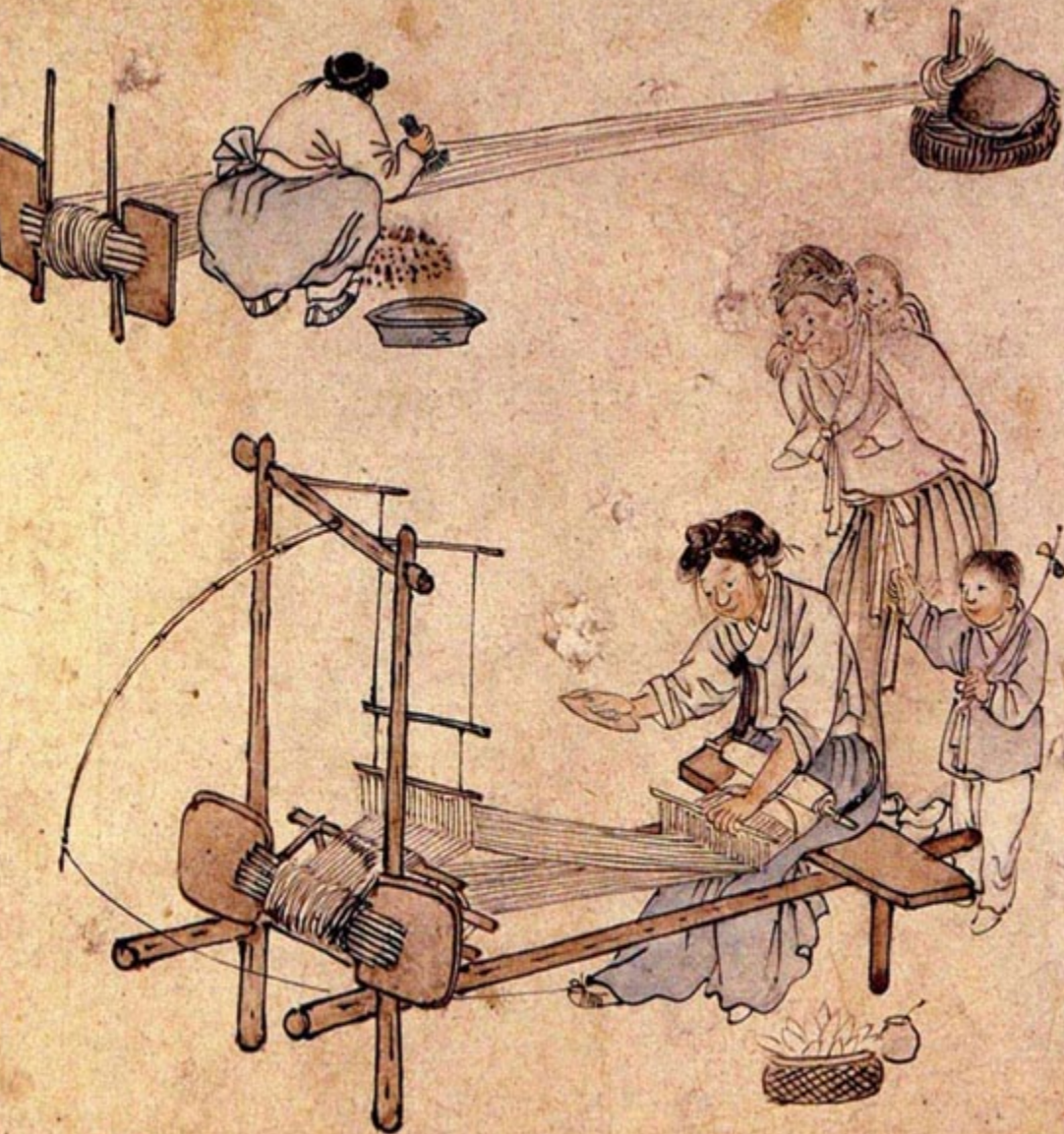
김득신, 〈야묘도추〉

엮음아라리의 재미는 말을 촌촌히 엮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치고, 치고, 치고...’하는 각운이 재미를 더합니다.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아니면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엮어서 웃게 만들죠.

영감은 할멈치고 할멈은 아치고
아는 개치고 개는 꼬리치고
꼬리는 마당치고 마당웃전에 수양버들은
바람을 맞받아 치는데
우리집의 서방님은 낮잠만 자네



이게 엮음아라리의 묘미입니다. ‘치고’라는 말을 이용하여 이번에는 이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엮어내는 것이죠.



김홍도, <길쌈>

인물묘사

다음 노래는 인물의 형상을 묘사한 것입니다. 먼저 노랫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보니 옥니배기¹ 뒤로보니 반꼬두머리²
 번들번들 솃돌이마 밥죽자루로 툭툭치던
 우리 시어머니요
 공둥표지 오시라고 호출장이 왔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인물을 묘사했느냐에 있습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고단했습니다. 물론 전통 사회에서는 모두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여성의 삶은 가부장제가 강했던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 탓에 더욱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어머니는 항상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라리뽀만 아니라 다른 민요에서도 시어머니의 존재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얼마나 시어머니가 미웠으면 시어머니 얼굴을 옥니배기, 반꼬두머리, 솃돌이마로 표현했을까요.

1. '옥니박이'의 토박이말로 이가 안쪽으로 조금 오그라져 있는 사람

2. '고수머리'의 토박이말로 곱슬곱슬한 머리

☞ 고부갈등 해결한 아들

옛날 정선군에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기 때문에 중간에 낀 아들은 망고생이 컸습니다.

고민하던 아들은 어느 날 장터에 다녀오면서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은 부인에게 “여보, 어머니가 그렇게 싫으면 좋은 수가 있소. 내 말대로 하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부인은 “당연하지요. 그 좋은 수라는 게 뭐예요?” 하였습니다. 아들은 장에 가니 건강한 늙은이를 비싸게 사들이는데 어머니를 거기다 팔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좋아서 당장 그러자고 했지요. 그렇지만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 말라서 걱정이라면서 밤 한 말을 사서 매일 군밤을 드시게 하면 그 밤을 다 먹을 때쯤이면 살이 많이 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바로 밤 한 말을 사러 갔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매일 시어머니 방에 군밤을 놓아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슨 일인가하고 의아해했으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매일 군밤을 드리지만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손주를 돌보기는커녕 아이를 미워했던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바쁠 때면 먼저 봐주겠다고 나섰습니다. 또 방아를 찧을 때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니 며느리는 새삼 시어머니가 고맙고 의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한 말이 다 떨어질 때쯤 아들은 며느리에게 이제 어머니 얼굴이 좋아지셨으니 시장에 팔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아니, 당신은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자기 부모를 파는 자식도 있답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없으면 못살아요.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하였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빙그레 웃으며 고맙다고 말했지요. 이렇게 해서 지혜로운 아들은 망고생도 안 하게 되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미운 마음은 마지막에 늘어지게 천천히 부르는 부분에서 잘 드러납니다. 엮음아라리는 앞부분은 촘촘히 빠르게 부르고 뒷부분은 원래의 아라리처럼 늘어지게 부르는데 대개 뒷부분에 노래의 주제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미운 시어머니가, 밥자루 쥐고서 매일 때리던 시어머니지만 이제는 죽고 없다는 내용이죠. 공동묘지의 호출장이란 말은 공동묘지에서 오라는 소리이므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죽으면 그만이니 며느리에게 잘해라’라는 내용으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들에게는 그러한 주제를 전달하고, 핍박받는 며느리들에게는 잘 참고 견디면 끝이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

강원 정성군 임계면에 있는 백복령에는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하여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형성되는 카르스트 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임계면 가목리 북쪽 능선 주위에는 50여 개의 크고 작은 돌리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돌리네란 석회암 지대에서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물에 녹으면서 깔데기 모양으로 패인 웅덩이를 말하는데, 가목리 지역에 발달한 돌리네를 비롯하여 임계면의 카르스트 지대의 영향으로 지하에 스며든 물이나 빗물들은 산계리 지역으로 흘러나와 계곡수나 용천수와 같은 샘물들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는 지질학적 특징이 일정한 면적에 집중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학습장으로서 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백복령 카르스트 지대는 지난 2004년에 천연기념물 제4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출처]
문화재청 홈페이지



이러한 주제는 다음 노래와 비교할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우리집의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엮어매고¹ 찌거매고 장치다리² 곰배팔이³
노가지나무⁴ 지게 위에 엮전 석냥 걸머지고
강릉 삼척에 소금사러 가셨는데
백복령  구비구비 부디 잘 다녀오세요



백복령은 정선에서 동해시로 넘어가는 고개로 예전에는 소금을 사기 위해 지게를 지고 이 고개를 넘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 노래에 등장하는 서방님은 시어머니만큼 형편없는 모습은 아니지만 얼굴은 곰보에 팔다리는 부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물은 정말 이렇게 생긴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높고 험한 고개를 넘어 잘 다녀오라고 당부합니다. ‘부디’라는 말에는 애정이 담뿍 담겨있습니다. 대상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이죠.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여도 남편의 말 한마디에 속이 풀리는 것이 며느리입니다. 사람들은 내 속을, 내 맘을 알아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1. ‘엮어매고’는 ‘얼굴이 엮다’는 것으로 얼굴에 마마 자국이 새긴 것을 말할
2. 구부러지지 않는 다리
3. 팔이 꼬부라져 붙어 있어서 팔을 펴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
4. ‘노간주나무’라고도 하고 ‘두송^{杜松}’이라고도 합니다.

정선 토속 음식

1) 콧등치기



멸치와 된장으로 국물을 내고, 호박, 우거지 등을 넣고 끓인 후 끓은 면을 넣어 만든 메밀 칼국수입니다.
국수가락이 익어서 먹을 때 콧등을 친다고 하여 콧등치기라고 부릅니다.

2) 곤드레밥



참기름과 소금으로 양념한 곤드레 나물을 넣어 지은 밥입니다.
곤드레는 식량이 떨어졌을 때 먹는 구황 작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강원도 정선의 특산물로 매년 5월쯤에 채취합니다. 곤드레밥은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밥을 짓기 때문에 색깔이 푸르스름 합니다.

3) 메밀전병



메밀가루를 묽게 반죽하여 얇게 지지고 매콤하게 양념한 정선 갯김치 배추와 양념을 넣은 떡입니다.
메밀총떡이라고도 부르며, 지역에 따라서 돼지고기, 오징어와 같은 재료를 양념해 넣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노래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노래는 밥끓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바글바글하다는 것을 비유한 노래로 고단한 며느리의 심정을 알려줍니다.

숙암단임 봉두거니 세모잡이 메밀쌀
사절치기¹ 강냉밥² 은 주먹같은 통노구에
오글박작 끓는데
시어머니 잔소리는 부싷돌치듯 하네



앞서 말했듯이 엮음아라리는 말로 엮어서 재미를 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말장난 같은 소리와 재미있는 상황을 나타낸 노래 더 보고 갑니다.

가다보니 감남기요 오다보니 웃남기요
엮어졌다 엄나무 자빠졌다 잣나무
침실홍실 대추나무 광광울려 뿔나무야
옹구하리 죽두같이 앞에놓고 앉았으니
임이오나 누웠으니 잠이오나 등불을 돌아놓고
침자를 돌아비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잠시잠깐 깜빡 조우니 새벽달에 지새네



1. 옥수수 한 알을 네 동강이로 타 지은 밥
2. 옥수수와 함께 물을 붓고 잘 무르도록 끓인 후, 남은 물에 쌀을 넣고 지은 밥

시대를 볼 수 있는 정선아리랑

정선아리랑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나의 노래가 이렇게 오랫동안 불리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선아리랑이 옛날부터 불렸다는
것은 어떻게 알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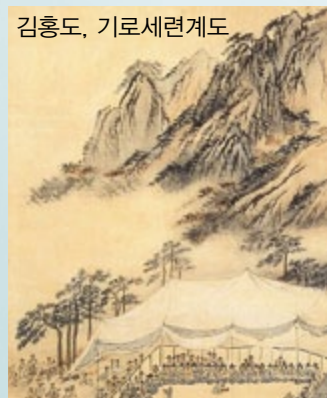
정선아리랑은 그 노랫말이
기록되기 시작한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 시작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옛 문헌에
나타난 이야기에 의해 짐작할
따름입니다.

무릉도원 武陵桃源



‘이상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중국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말입니다. 중국 진나라 때 무릉에 사는 한 어부가 배를 저어 가다가 복숭아꽃이 아름답게 핀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곳에서 더 올라가니 동굴이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고, 옛날 진나라 때 혼란을 피해 도망온 사람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무도 이곳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수산 萬壽山



송악산의 다른 이름으로 고려왕조의 도읍지였던 개성 북쪽에 있습니다. 산 아래에는 고려의 궁궐터인 만월대가 있습니다. 만수산이라는 이름은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고려충신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한 ‘하여가(何如歌)’에도 나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림취이 얹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까지 누리리라

무릉도원에서 피어난 충심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정선아리랑에 대한 설명은 조선시대 초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새롭게 건국되자, 전오륜^{金五倫}¹을 비롯한 몇몇 고려 충신들은 조선에서 주는 벼슬을 마다하고 정선으로 들어옵니다. 정선의 옛 이름은 무릉도원^{武陵桃源}입니다.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정선은 아름답고 당시 조선 초기의 수도였던 개성과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요. 깊은 산중에 있는 정선은 숨어 살기에 적합했습니다. 이분들은 고려에 대한 그리움과 조선에 대한 원망을 가슴에 안은 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눈이 올라나 비가 올라나 억수장마 질라나
만수산^{萬壽山} 검은 구름이 막 모여든다



여기에 나오는 만수산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성을, 검은 구름은 조선의 권력으로 돌아선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룬 것이지요. 이 소리를 당시의 충신들이 불렀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이 분들의 충성을 안타까워하는 백성들이 노랫말을 지어 위로 삼아 불렀을 것입니다.

1. 고려말의 문신으로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공양왕 때 우상시, 좌산기상시, 형조판서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나 1392년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들어갔다가 태조 이성계의 노여움을 사 고향인 정선에 유배되었습니다. 후에 처벌이 끝난 이후에도 정선군 서운산에 은거하며, 충절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성마령 星摩嶺

정선군 용탄리와 평창군 미탄리 사이에 있는 해발 979m의 고개로 국도가 개통되기 이전까지 정선의 관문^{關門}이었습니다. 성마령이라는 이름은 밤하늘의 별을 만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관음베루 觀音베루

정선읍 봉암리 관음동에 있는 절벽으로 예전에는 신라 의상 대사가 세운 관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양강 옆에 있는 이 절벽 아래에는 화주일춘^{花主一春}이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여기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오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관음사에 일춘^{一春}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관음사로 오가기 쉽게 하기 위하여 관음베루 밑에다 다리를 놓겠다며 사람들에게

게 시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겨 이를 착복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부처님의 별을 받아 큰 구렁이로 변하였고 관음사 입구에서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음사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되어 점점 폐허가 되어 갔습니다. 10여 년 후, 과거를 보러 가던 네 명의 선비가 정선에서 하룻밤 묵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한 선비의 꿈에 일춘이라는 네 글자를 새겨 주면, 이번 과거에 급제할 것이며 자신의 죄도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깬 선비는 다른 선비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고, 선비들이 각각 한 글자씩을 새겨 넣었습니다. 결국 4명의 선비는 과거에 합격하였고, 구렁이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높고 험한 고장 정선

아질아질 꽃베루재¹ 지루하다 성마령 關
지옥같은 이 정선을 왜 따라 왔나



아질아질 성마령 야속하다 관음베루 關
지옥같은 정선읍내 십년간들 어이가리



위 노래는 조선 후기 때 정선을 어질게 잘 다스렸다고 알려진 오형묵^{吳弘默} 군수의 부인이 지었다는 노래입니다. 오형묵이 정선 군수로 임명되어 정선에 올 때, 가마를 탄 그의 부인이 높고 험한 성마령을 넘고, 지루한 관음베루를 지나가는 동안 생전 처음 험한 길을 경험하면서 울며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도 역시 오형묵 군수의 부인이 부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민요는 백성의 노래이므로 이 지역에 살지 않았던 더구나 양반댁 부인이 소리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선 지역 사람들은 이렇게 노랫말을 지어서 정선 땅의 험함을 노래하였답니다.

1. 북평면 남평리와 여량리 사이에 있는 산굽이 길을 지칭하며, '곧벼루'라고도 합니다. '베루' 혹은 '벼루'는 벼랑의 토박이말입니다.



강제 징병

일본은 1941년 12월 7일에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1942년 6월부터 점차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1942년 9월 30일에 '청장년국민등록'을 실시하여 한국의 청년들과 장년들을 강제 노동과 전쟁터로 보낼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943년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징병제'가 실시되어 많은 한국 청년들이 태평양 전선과 중국 전선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10월 20일에는 '학병제'를 실시하여 학생들까지 징병시켰습니다. 1944년 8월 23일에는 '여자정신대근무령'을 공포하여 12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까지도 본격적으로 강제로 징집하였습니다.

일제에 항거하는 소리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의 고생은 심했습니다. 일제의 침탈이 더욱 가속화되는 일제강점기 말기로 갈수록 괴로움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강제로 끌고가 싸우게 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심정을 아래의 노랫말로 불렀습니다.

반달같은 우리오빠는 대동아전쟁을 갔는데
샛별같은 우리올케는 독수공방 지키네



석새배¹곤방치마²를 입었을망정
네까짓 하이칼라³는 눈밑으로 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 사람들을 정선아리랑에서는 하이칼라로 표현하였습니다. 하이칼라란 원래 블루칼라의 대칭되는 말로 사무직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일본 앞잡이라는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1. '석새삼배'라고도 하며 아주 성글게 짠 배를 말합니다. '새'는 옷감의 날을 세는 단위로 낱실 80올이 1새입니다. 따라서 '석새배'는 240올로 짠 배입니다. 조선 시대 기록에는 석새배, 열새배, 열다섯배가 등장합니다.
2. 곤방치마라고도 하며, 일할 때 입는 짧은 치마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누추하고 초라한 치마'라는 의미입니다.
3. 이 말은 원래 와이셔츠 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서양식 유행을 따르는 멋쟁이, 도시물을 먹은 사람 등 문학에서는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여기서는 일제 앞잡이를 뜻합니다.

Tip '그 날이 오면'

심 훈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 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 주지만 할 양이면,
나는 밤 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景}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 날이 와서, 오오, 그 날이 와서
육조^{六朝}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족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메고는
여러분의 행렬^{行列}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일본의 패망으로 막을 내리자 우리 민족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소리칩니다. 이런 소리는 아마도 울며 웃으며 다 같이 불렀을 것입니다.

삼십육 년간 피지 못하던 무궁화꽃은
을유년^{乙酉年} 팔월 십오일 만발하였네



무궁화는 국화로 우리 민족을 상징합니다. 무궁화가 피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억압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해방되던 날의 기쁨과 환희가 잘 나타나 있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심훈 시인의 '그 날이 오면' 田을 떠오르게 합니다.

1. 10간과 12지를 합성하여 만든 60간지 중 22번째에 해당하는 해이며, 여기서는 1945년을 의미

- 10간
갑寅—을卯—병辰—정巳—무戊—기미—경庚—신辛—임壬—계축
- 12지
자子—축丑—인寅—묘卯—진辰—사巳—오午—미未—신申—유酉—술戌—해亥

노랑두머리 파뿌리 상투

‘노랑두머리 파뿌리 상투’는 옛 어른들이 어린 신랑을 놀릴 때 쓰던 말로 노랑머리는 어린 아이들을 속되게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상투는 15세 이상의 남자나 결혼한 남자가 하던 머리 모양으로 파뿌리 상투란 아직 나이가 어려 작은 상투를 표현한 것입니다.

파뿌리 대신 물레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여러 민요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민요가 있습니다.

노랑두대가리 물레줄 상투
샛문턱에서 밥괘이 달라고
흘쩍 흘쩍

위의 노래는 평안북도 의주군의 ‘신랑가’입니다. 나이 어린 신랑이 자기 아내에게 밥을 풀 때 누룽지를 달라고 조르는 것으로, 어린 신랑이 채신없이 구는 것을 놀리는 노래입니다.

백모래

정선읍에는 여량리로부터 발원하여 정선읍 가수리에서 동강과 만나는 조양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1605년 이 조양강의 유수가 변경되면서 넓은 백사장이 생겼다고 합니다.



조혼^{早婚} 풍습과 꼬마신랑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말부터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으며 일제강점기 때에도 앞서 말했듯이 일제가 젊은이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러한 풍습이 계속 되었습니다. ‘꼬마신랑’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다음 노래는 여성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아이와 결혼하면서 생기는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랑두머리 파뿌리 상투[㉠]를
언지나 기르구 길러서 내남군 삼나



정선읍내 백모래[㉠] 자락¹에 비오나 마나
어린가장^{家長} 품안에 잠자나 마나



부인은 사춘기가 지나 부부의 정을 나누고 싶지만 남편의 나이가 어려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속상한 심정을 읊은 것이지요.

1. 넓게 드리워진 한 부분

지혜로운 꼬마신랑 이야기



정선군 여량면에는 지혜로운 꼬마신랑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선군에 한 집에서 민며느리(장래에 며느리로 삼기 위하여 미리 데려온 여자 아이)를 데려와서 키웠는데, 어느 덧 여자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의 나이는 아직 어려서 매일 밤 신부의 치마에 오줌을 쌌습니다.

신부는 처음에 물을 쏟았다고 그랬지만, 매일 밤 오줌을 싸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외양간 지붕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부모가 신랑에게 왜 지붕 위에 올라갔냐고 물었습니다. 꼬마신랑이 사실대로 말하면 며느리가 크게 혼이 날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지붕에 호박이나 박을 심어 놓곤 했습니다. 꼬마신랑은 신부를 위해 호박따러 올라 왔다고 하면서 여러 호박들을 이리저리 만졌습니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지혜로운 꼬마신랑 덕택에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밥먹다가 싫은것은 개나주면 되지
임하나 잘못만나면 백년원수로다



얼마나 싫으면 개를 들어가며 비유할까요? 밥과 임을 비교하면서 노래하는 애절함을 보세요. 얼굴도 모르고 혼인을 하였으니 서로 다른 성격을 맞추어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밥처럼 쉽게 처리할 수도 없이 남은 한 평생을 싫은 사람과 함께 살려니 기가 막힙니다.

잘살고 못사는 건 들의 분복¹인데
중신애비² 원망은 아예 하지 맙시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자신을 위로해 보기도 합니다.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한다면 내가 하기 나름으로 나의 복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죠. 중신애비와 같은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 봅니다.³

1. 각자 타고난 복
2. 중매쟁이의 토박이 말로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한국전쟁 중의 정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한을 침공한 지 4일이 지난 6월 29일 정선에도 북한군이 침입하였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정선주민들이 피난을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한 달만에 북한군은 경상도 일부를 제외한 전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일 국군이 38선을 돌파하면서 정선군이 수복되었습니다. 이 때 북한군은 퇴각하면서 정선군의 민주인사들을 사살하거나 납치해 갔습니다. 11월에 100여 만 명의 중공군이 참전을 하게 되자 이듬 해 1월 6일 정선경찰서도 다시 철수하게 되었다가 3월 25일에 정선지역은 완전하게 수복되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참전 외국 군인들을 위한 기념품으로 만든 아리랑 실크 스카프로 정선아리랑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방 이후의 정선아리랑

1945년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우리나라는 해방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국토는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되고 한국전쟁이라는 슬픈 역사를 맞이하죠. 남쪽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을 원망합니다. 얼마나 미웠으면 그 무서운 공동묘지의 귀신을 등장시켰을까요?

공동묘지의 쇠스랑 귀신아 무얼 먹고 사느냐
이북의 김일성이는 왜 안 잡아가나



앞 남산의 호랑나비는 왕거미줄이 원수요
시방시제¹ 청년들은 삼팔선이 원수라



대조법이 돋보이는 바로 위의 노래는 청년들이 부른 것입니다. 국가의 근본을 지키는 국토안보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창 일할 나이에 국방의 의무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1. 지금 시대의

부령 청진

부령과 청진은 모두 함경북도에 있는 지명으로 부령은 함경북도 중부에 있는 군이고 청진은 함경북도 중동부 동해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특히 청진시는 1904년 러일전쟁일 발발하자 병력과 군수물자의 출입항으로서 차츰 발전하다가 1908년 만국통상항으로 개항되었습니다.



강산에, '라구요'



YOUTUBE
라구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부담 때문에 통일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도 가져 보게 되죠.

우리야 고향은 부령 청진  이지

언제나 통일되어서 환고향 還故鄉¹ 하나



위 노래는 강산에의 노래 '두만강 푸른 물에~'  를 생각나게 합니다. 부령과 청진은 모두 현재 북한 땅에 있는 지명이지요.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도 명절 때마다 임진각에 합동분향소를 차려 놓고 차례지내는 어른들은 고향이 북한에 있죠. 이분들은 누구보다 애타게 통일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1.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온다'는 의미의 한자어

민요의 특징과 종류

민요는 악보에 기재되거나 글로 쓰이지 않고 구전^{口傳}되며,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구비문학인 무가나 판소리와는 달리 전문적인 수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랫말은 부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부르는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즉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요는 민중의 소리이며, 민족의 정서를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민요의 기본적인 형태는 생활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는 것인데, 기능에 따라 노동요, 의식요, 유희요로 나뉩니다.

우선 노동요는 일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고, 흥겨워서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노동요는 전통적인 노동의 거의 전 영역에 걸쳐 불려지고 있으며, 노동의 방식에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불려졌습니다. 노동요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모심는 소리〉, 〈논매는 소리〉, 〈묵도하는 소리〉, 〈노젓는 소리〉 등이 있습니다.

의식요는 사람의 일생에 따르는 통과 의례와 일년의 절기에 따른 세시 의례를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입니다. 이러한 의식요에는 〈상여소리〉, 〈회다지소리〉, 〈지신밟기 소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희요는 노래 자체가 즐거워서 부르는 소리입니다. 아이들이 놀면서 부르는 소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창부타령〉, 〈노들강변〉, 〈청춘가〉, 〈칭칭이소리〉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라리의 경우에는 일하면서, 또 놀면서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민요를 다기능요라고 합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민요

이렇게 정선아리랑에는 항상 시대적인 모습이 노랫말 속에 녹아 있는데, 그 이유는 정선아리랑이 사람들의 삶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민요 는 기층민의 노래입니다. 민요를 부르는 사람은 권력자나 정치가가 아니고 주어지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으며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민요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그때 느끼고 생각한 것을 그대로 노랫말에 실어 불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소박하고 진솔합니다. 사람들의 힘과 진실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노랫말의 특징은 다른 아리랑과 비교하는 좋은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정선아리랑에는 의식주와 같은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자주 등장하는 반면 다른 아리랑들은 그러한 노랫말이 비교적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모든 아리랑의 어머니가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소리인 정선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일하면서 부르는 정선아리랑

앞에서 민요는 함께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다고 했습니다.

정선아리랑은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불렀나요?
아라리를 부르면서 하는 일이
정해져 있나요?

정선 지역이 산지 지형이므로
산과 관련된 화전, 떼목, 광산
같은 일을 할 때 부르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도, <벼 타작>

머슴으로 산다는 것

예전에는 머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던 시절에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하고 품삯을 받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남의 집 살림살이가 쉽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아래 노랫말을 보면 정월에 일하는 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명절은 가족들이 모두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쉬어가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아 남의 집에서 품을 팔던 머슴에게 주인집은 매정하게도 명절에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러운 생각에 아래와 같이 소리를 하게 됩니다.

남의집에 머슴을 일년 삼개월 살아보니
정월이라 초하룻날에 땀나무 해오라하네



다들 모여 놀고 쉬는 명절에 집에 못간 것도 서러운데 일을 하라고 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 머슴 관련 노래

경상북도 곳곳에는 '어사옹'이라는 나무꾼 노래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어사옹'은 '신세 타령'이라고 하는데 주로 머슴들이 나무를 하러 가며 불렀다고 합니다. 늦도록 장가도 들지 못하고 남의 집에 고용살이하는 머슴은 할 말이 많지만 나무하러 갈 때가 아니면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 없고, 까마귀나 기러기가 아니 고서는 말을 들어줄 상대도 없었습니다. 영천에서 내려오는 '어사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해해 까마귀야
저건너 적석산에
물이 짹짹드는 저산에
우리동무 개장국에 밥말아놓고 날부리나
저산이라 가자

저건너 저골짜에
나물하는 저처녀야
이건너 이골짜에
어나리 사나리 참나물 고두서리 이골짜에
자빠졌다 이리오너라 헤어

귀야까마귀야
신에신곡산 가리갈가마귀야
니껌다고 한탄마라
니껌은줄은 온조선이 다알건마는
이내속 울뻐병든줄 어느누가 알아주리

다른 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어사옹'도 부릅니다.

이에에이
의양땅 갈가마귀야
이 내 소식을 전해다오

히요 날라가는 저 기력아
이 내 소식을 전해다오
히에 산은 내 산이요
물은 내 물이 아니로다
주야장천 흘러가는 물을
내 물이라고 할 수 있나 후후후야 허허이

바람아 강풍아 불지 말어라
서풍에 낙엽이 다 떨어진다 허허후야
이요 후야후야 슬프다
우리 남궁님은 점수 굵고 나무하러 갔네

이요 어떤 사람은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이요우 회롱하며는 살건마는
이요 이내 팔자는 왜 이러노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살자하니 고생이데이

한편 1980년대에는 가요 '밀양머슴 아리랑'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밀양 머슴아리랑

이런 마음은 아래와 같은 노래로 이어집니다.

놀다가 죽어지면 물밀의 봉어요
일하다가 죽어지니 우리 농민들일세



놀다가 죽어져도 원통다고 하는데
일하다가 죽어지니 할말이 있나



머슴살이로 일을 해봐야 먹고 살기 바쁘고 돈을 모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는 먼 일인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맨날 일만 하다가 세월이 가면 자신은 좋은 날 한번 없이 이 세상을 하직할 것만 같습니다. 머슴살이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의 삶은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의·식·주 모두 한 가족이, 개인이 만들어서 해결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고된 노동에 대한 신세한탄이 배어난 소리입니다.☞



산 속의 밭, 화전^{火田}

정선 지역은 해발고도가 높은 산지 지형으로 넓은 평야가 없습니다. 백두대간의 높고 가파른 지역에 속해 있어 평야는 없고 산이 발달한 지형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에서 농토를 얻지 못해 산으로 쫓겨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평평한 평지에는 이미 모두 주인이 있기 때문에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 풀과 나무를 불사르고 그 자리를 팽이로 파서 밭을 일굽니다. 이러한 밭을 화전이라고 하지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 불을 지른 후 그 땅에 곡식을 심으면 나무의 재가 거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곡식이 잘 자랍니다. 또한 거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콩과 옥수수, 감자 등을 심기 때문에 화전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옛날 사람들은 굶는 것을 면하는 것입니다.



화전민이 많이 짓고 살았다던 귀틀집(정선 아라리촌 소재)

보릿고개



보릿고개는 지난 해 가을에 수확한 양식이 바닥나고, 올해 농사지는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음력 4~5월, 즉 양력으로는 5~6월의 식량 사정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말합니다. 춘궁기^{春窮期}라고도 합니다. 농민들은 추수 때 걷은 수확물로 소작

료, 빚 또는 그 이자,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식량으로 초여름에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버티기에는 그 양이 절대 부족하였습니다.

화전^{花煎}놀이

음력 삼월 중순 경에 교외나 야산과 같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꽃을 보며 노는 꽃놀이입니다. 진달래꽃으로 화전^{花煎}이나 화면^{花麵}을 해서 먹으며, 가무를 즐기던 여성놀이입니다.



보릿고개 𪎐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나물, 나무껍질, 잡곡 등으로 춘궁기라는 봄을 넘어가야 합니다. 요새는 별미로 먹는다는 여러 음식들은 사실 이때 쌀이 없어 밥을 못 먹고 살던 시기에 나온 음식들입니다. 나물죽, 나물밥, 올챙이국수, 메밀전병, 메밀전 등이 그것입니다.

고무꿀¹ 잣말랑²에 새밭³ 파는 총각아
새조밭 파지말고 화전놀이 𪎐 가세



위 노래는 화전밭을 일구던 사람들이 일이 힘들고 고될 때 위로삼아 부른 것입니다. 매일매일 계속되는 노동에 지친 사람들이 노래로나마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1. 정선 남면 자미원 서쪽에서 신동읍으로 넘어가는 고개
2. 산등성이의 토박이말
3. 새조밭이라고도 하며 화전^{火煎}을 일컫음

정선 때꾼 이야기

옛날에는 산에서 나무를 베면 스무 자(약 6m)씩 끊어가지고 강가에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면 때꾼들이 모여서 때를 매었습니다. 그 때를 가지고 영월까지 가는 때꾼이 있는가 하면(고란때꾼 혹은 고랍때꾼), 영월을 지나서 서울까지 가는 때꾼(고식때꾼 혹은 아랫강때꾼)도 있었습니다. 주로 소나무를 산에서 베다가 때를 매어 노를 저어 가는데 물이 많으면 영월까지는 2일 정도 걸렸고, 서울까지는 15일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서울까지 가는 중간에 주막이 많이 있는데, 주막에서 하룻밤 잘 때에는 나무의 주인(목상)이 미리 계산을 다 해 주고 나중에 품삯에서 제하곤 했습니다. 당시에 뗏목꾼들은 돈벌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사실 무척 위험한 돈벌이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 뚝섬에 배를 대는데 뚝섬에 도착하면 아가씨들이 돈을 벌기 위해 나룻배에 술을 싣고 와서 술을 팔곤 했다고 합니다.



산 속의 나무, 뗏목

정선에서는 여러 가지 산업과 일들이 산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산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많은 것을 제공합니다. 목재, 산나물, 열매, 광물, 동물 등이 산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특히 강원 지역의 목재는 품질이 좋아 서울로 많이 팔려 나갔습니다.

목재가 귀했던 시대에 서울 한양까지 나무를 운반하는 일은 중요하였습니다. 도로와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않던 시기였으므로 백두대간의 아름드리나무는 주로 뗏목 ㉠을 이용하여 운반했습니다. 큰 나무들을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 한강을 이용하여 서울 마포나루까지 몰고 가는 것이지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조성된
전산옥 주막
-정선읍 녹송공원 소재-



전산옥 金山玉 (1909~1987)

전산옥은 영월에 있는 만지 나루터에서 떼꾼들을 상대로 1960년대 후반까지 주막을 운영하던 여자였습니다.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태생으로 정선아리랑을 잘 불렀던 실존 인물입니다.

전산옥이 운영하던 주막은 1970년대 초 산업발전으로 인하여 뗏목과 함께 사라졌지만 정선아리랑을 구성지게 불렀던 여주인 전산옥의 추억은 정선, 영월 등 동강 변 어르신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황새여울¹ 된꼬짜리² 떼를 무사히 지나니
만지산³ 전산옥 ㉠ 이야 술반 뉘아놀아라



떼를 타는 일은 위험한 일에 속했기 때문에 수입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정선에서 묶은 떼는 영월에 나가서 여러 떼를 한꺼번에 묶어 남한강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떼꾼들은 정선아리랑을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위의 노래에 나오는 위험한 여울들을 만났을 때는 그럴 여유가 없었지만 넓은 강위를 천천히 흐를 때는 절로 아라리가 나왔지요.

떼꾼들에게 돈이 많다는 것은 주막집에서 먼저 알았습니다. 먹고 자기 위해 강가의 주막집에 들러야 했는데 이 주막집마다 소리 잘하는 아가씨들이 많았습니다. 떼꾼들과 아가씨들은 소리 자랑도 하였지요. 또한 마포나루에 도착하여서도 술과 소리는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떼꾼들은 정선 땅에 다시 돌아올 때는 빈손인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정선아리랑이 서울 경기 지역으로 전파된 또 하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1. 영월군 영월읍 문산리 북쪽에 있는 여울로 물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있는데 황새들이 잘 앉았다고 합니다.
2. 동강 물길인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에 있는 구비가 심한 여울로 고깔처럼 삐죽 솟은 바위가 물굽이에 있어 생긴 이름입니다.
3. 만지^{滿地}는 영월읍 거운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비가 올 때나 가뭄이 심할 때에도 마을 앞 강변으로 강 옆으로 늘 물이 가득한 높이 있어 정선쪽에서 내려오는 뗏목을 고쳐 매던 곳이었습니다.

화암동굴

화암동굴은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3호로 원래는 금을 캐던 천포광산(泉浦鑛山)이었습니다. 천포광산은 1922년부터 1945년까지 23년간 약 29,904g의 금을 생산하는 국내 제5위의 광산이었습니다. 화암동굴은 1930년대에 금광을 캐던 광부가 발견했다는 천연동굴입니다. 동양 최대의 황금빛 종유벽을 비롯해 석회동굴 광장, 화려한 석순과 석주로 유명합니다.

1993년부터 일반에 공개되었으며, 현재는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꾸며놓은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입니다.

금을 캐던 일제 시기 때 채광작업을 하던 장비와 시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실제의 금광맥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금이 생산되는 과정을 실물과 당시의 자료, 영상물들로 전시하였습니다.

동굴 내부는 ‘역사의 장’, ‘금맥따라 365’, ‘동화의 나라’, ‘금의 세계’, ‘대자연의 신비’라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람길이 1,803m를 돌아보는 데 평균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산 속의 금, 광산

정선 지역은 광산이 발달하여 그에 따른 정선아리랑도 있습니다. 광산 중에는 일제강점기 때 금을 많이 캐던 금광도 있습니다. 화암면에 있는 화암동굴에 가면 당시의 광업 현장을 재현해 놓아서 그 시절의 느낌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고꾸지¹ 탄광에 갱입구에 휘파람 불지 말아라
꽃갈은 우리 임이 쌍과부 된다



광산일은 예나 지금이나 위험합니다. 요새도 간혹 들려오는 광산 사고는 그 사실을 입증하지요. 갱도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갱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많은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휘파람은 갱도가 무너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광부들 사이에서는 절대 금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 노래의 아름다운 점은 휘파람 불지 말라고 화나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부인에 대한 애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이르는 말에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죠.

1. 광산 등을 개발하기 위해 뚫는 구멍이나 구멍있는 곳으로 여기서는 ‘갱도’를 의미

㉠ 노다지

금이 막 쏟아져 나오는 광맥을 말합니다. 이 노다지라는 말의 어원은 영어 노터치^{no touch}에서 왔다고 합니다. 조선말기 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동안 금을 채굴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평안도에 있는 어느 금광에서 금맥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인 광부들은 뜻밖에 아주 커다란 금덩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환호성을 외쳤는데, 큰 소리에 놀란 마을사람들 몇 명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미국 광부들은 조선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노터치, 노터치”, 즉 “너희들은 여기에 접근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금을 보고 노다지라고 하는 줄 알았고, 그 후 노다지라는 말은 노터치가 아닌 노다지로서 금덩이를 나타내는 순수한 우리의 말로 되었습니다.

㉡ 옛날 광부들이 금을 훔치던 방법

예전에 광산 일을 하였던 어른들은 금을 훔쳐서 몰래 가지고 나오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 금광에서 나올 때는 몸수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금덩이라도 숨겨가지고 나오면 밖에서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광부들이 끊임없이 금덩이를 숨겨 나오려 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짜고 연극을 합니다. 먼저 한 사람이 심한 욕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마구 던집니다. 다른 한 사람도 함께 주먹다짐을 하면서 물건을 던집니다. 수색대 근처에 왔을 때는 점심에 먹고 난 빈도시락을 던집니다. 물론 이 도시락에 작은 금덩어리들을 숨겨두는 것이지요. 수색 담당자들은 싸움을 말리거나 욕을 하면서 사태를 수습하기에 이르고 도시락을 검사할 생각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사귀지¹ 못할 건 금전꾼² 아저씨
노다지 ㉠ 만 나오며는 간곳이 없네



이 노래는 가슴이 아쁩니다. 광부와 사랑에 빠진 여성이 부른 것으로 보이는데 벼락부자가 된 광부의 변심과 그에 대한 여인의 탄식 등이 보입니다. 금덩이를 훔쳐서 가지고 나온 사람은 당장 그날 밤으로 줄행랑을 놓습니다. 나중이라도 걸리면 큰 일 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성들은 소식도 없이 사라진 남자들의 매정함에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랫말들이 당시에 불린 것이죠. 금덩어리를 하나 주워서 나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신세를 바꿀 수 있는 일이었으니 광부들은 어떻게 하면 금을 숨겨 나올까 궁리요 그를 감독하는 감독관들은 그 사람들을 잡아내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

1. '사귀지'의 의미
2. 금광 일을 하는 사람

삶의 고난을 보여주는 정선아리랑

함께 일할 때 외에 혼자 부르는 소리는
슬픈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옛사람들의 삶은 지금보다
거칠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정선아리랑에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거기에만 그치지 않는 점이
정선아리랑의 매력입니다.

한치뿔산(민동산)

한치뿔산은 정선군 남면에 위치한 산으로 현재는 민동산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민동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곤드레, 딱주기나물 등이 잘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러 불을 낸 것이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동산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동산은 해발 1,118.8m이며, 등산로 초입은 소나무 관목과 잡목이 무성하게 있지만 7부 능선을 넘으면, 정상에는 나무를 찾아보기 힘든 완만한 구릉지대로 억새만 있습니다.

10월 중순이 되면 정상 부근 20여 만평의 평원은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을 만큼 억새가 널려 있기 때문에, 억새밭에 들어서면 사람 키보다 큰 억새에 파묻혀서 등산로 이외에는 주변 경치가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망도 뛰어나고, 완만한 곡선을 그린 능선이 이어진 억새동산이 거대한 목장과 같은 느낌을 줍니다.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족산행에 알맞습니다.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노래

옛날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를 마련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는 것은 1년 중 명절에나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넘쳐나는 요즘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아무튼 가난한 살림살이는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곳에 대한 곤궁함을 느끼게 했는데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이 가슴 아픈 것은 가난한 이 상황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의 마음과 생각이 고스란히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에 드러나 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밥은커녕 나물이 주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말이 나물죽이지 곡식보다 나물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마음을 달래봅니다.

한치뿔산^{Tip}에 곤드레 딱주기 임의 맛만 갈다면
올같은 흉년에도 봄살어 나지





앞서 말했듯이 정선아리랑의 특징 중 하나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가감 없이 그대로 표현해 내는 데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이 우수에 젖었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은 이것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춘추가 많아서 이내 몸이 늙었나
곤궁한 살림살이에 모발이 다 시었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희어지는 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위 노래에서는 자신의 머리가 희어진 것이 나이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아직 머리가 희어질 나이가 아니나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워 머리가 흰 것이라 얘기합니다. 사는 게 얼마나 힘들면 젊은 나이에도 머리가 흰까요?





밤한냄비를 달달볶아서 간난이아버지 데리고
간난이하고 나하고는 저녁끓어 자네



밤한냄비를 달달볶아서 연눔¹이 다쳐먹고
간난이하고 나하고는 저녁끓어 잤네



집에 남아 있는 밥은 겨우 한 냄비뿐인데 그마저도 다른 사람들이 다 먹어버리고 위의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과 아기는 끓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슬프기만 합니다. 이렇게 한 끼만 끓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이전에도 끓었기 때문에 더욱 서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감정은 아래 노래로 이어집니다. 먹을 밥이 없어서 아침을 끓고 도토리를 주우러 가야 합니다. 배는 고프고 힘든데 밥도 되지 않는데 도토리를 주워야만 하는 신세가 서러워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굴밤²즙은 종다래끼³를 옆옆에다 끼고
식전아침에 굴밤 좇는 게 웬말인가



1. '연눔'이라는 말로 여자와 남자를 낮추어 한 말

2. 도토리의 토박이말

3. 작은 바구니를 말함



미운 정 시어머니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삶은 더욱 고단했습니다. 전통사회에서 결혼한 여성은 출가외인^{出嫁外人}이라 해서 한 번 결혼하면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 되어야 했습니다. 시집 온 여성은 낯선 시댁 식구와 새로운 시집살림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 새로운 집안 살림에 익숙해지기도 쉽지 않은데, 시어머니나 시누이를 비롯한 시댁식구들은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선뜻 한 식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구박하고 길들여서 한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많은 며느리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게 되고 아래와 같이 소리하기도 합니다.

날가라더라 날가라더라 날가라고 하더라
삼베질쌈¹ 못한다구서 날가라고 하더라



이 노래는 시집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듣고 자신의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삼베와 길쌈은 예로부터 며느리가 꼭 해야 하는 일로 꼽혔습니다. 그러므로 일을 못하는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구박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1.삼베길쌈, 삼의 겹질을 찢어서 실을 만들어 베를 짜는 일을 말함

☞ 보리방아

보리방아란 보리쌀을 넣고 찧는 방아를 말하며, 방아란 곡물을 절구에 넣고 껍질을 벗기거나, 가루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농기구입니다. 방아에는 맷돌, 절구, 연자방아, 물레방아, 디달방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곡식의 양이 적으면 맷돌이나 절구를 사용했지만, 양이 많으면 디달방아를 사용했습니다.



맷돌은 바닥이 평평한 두 짝의 둥근 돌 사이에 곡식을 넣고 한 짝을 돌리면서 곡식을 비비면서 껍질을 까거나 뺑는 데 사용한 도구입니다.



절구는 통나무나 돌의 속을 파내어 그 곳에 곡식을 넣고 절구 공이로 찧는 도구입니다.



정선 아라리촌 소재

연자방아는 둥글고 판판한 돌판 위에 그보다 작고 둥근 돌을 옆으로 세워 얹어, 아래 위가 잘 맞닿도록 하고 말이나 소가 끌고 돌리는 것입니다. 동물의 힘을 이용하기 때문에 빠르고 일은 쉽지만 부서지는 나락의 양이 많았습니다.

물레방아는 물의 힘을 이용하는 것으로 큰나무바퀴와 굴대에 공이를 장치하여, 쏟아지는 물이 나무바퀴를 돌리면 공이가 곡식을 찧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선 아라리촌 소재



디달방아는 발로 밟아서 곡식을 찧거나 뺑는 농기구로 보통 방아채를 밟는 사람 1~4명, 방아화의 곡식을 돌보는 사람이 따로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며느리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나쁜 마음까지 생기게 됩니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을 미워하게 되고 아래와 같이 소리하기도 합니다.

시아버지 죽고없으니 사랑방 널러¹ 좋더니
시어머니 죽고없으니 안방이 널러² 좋다



이 노래는 참으로 노골적입니다. 드러내 놓고 시어른들이 죽은 것에 대해 좋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으면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인 죽음 앞에서 애도조차 잊었을까요? 그런데 아래의 두 노래를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아버지 죽고없으니 사랑방 널러¹ 좋더니
자리² 날² 터지니 시아버이 생각나네



시어머니 죽고없으니 안방이 널러¹ 좋더니
보리방아³ 물주주나니는 시어머니 생각나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앞의 노래와는 다른 정서가 보입니다.

1. '널어'의 토박이말

2.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바닥에 까는 자리의 귀퉁이



그동안 미운 감정이 앞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사랑방이 넓어져서 좋구나’ 했던 마음이 자리날이 터지니까 항상 자리를 짜주시던 시아버지가 생각납니다. 구박만 일삼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순간에야 ‘이제야 구박하던 사람이 없어졌구나’ 하며 좋아했으나 보리방아를 짙으려고 보니 그동안 함께 했던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특히 ‘보리방아 물주고나니 생각난다’라는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예전에는 지금처럼 하얀 쌀로 밥을 지은 것이 아닙니다. 벼를 통째로 보관한 후에 밥할 때마다 짙어서 쌀을 까부러서 밥을 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아에 넣고 짙어야 하는데 디딜방아를 짙으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방아를 디디면 방아 공이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보리가 잘 짙어지도록 손으로 자리를 잡아주어야 합니다. 혼자 하려면 작업이 더디고 귀찮지요. 당연히 시어머니의 손길이 생각나고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독특한 우리 민족의 정서입니다. 미운 정에 대해 사람들은 고운 정보다 무섭다고 하지요. 이것은 이렇게 미운 정이 더 뿌리가 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워했던 시어른들이지만 일상생활에서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앞의 노래에서 독하게 읊었던 심정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요.

여랑 처녀 이야기

옛날에 여랑의 가난한 집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처녀의 집은 너무 가난하여 어머니는 나이 많은 홀아비에게 딸을 민며느리로 시집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처녀는 그 혼사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꾸 딸을 홀아비에게 시집보내려 하고 처녀는 죽어도 못간다고 버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압박이 심해지자 딸은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기 싫은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이지요. 예전에는 혼인 당사자의 마음과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생각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처녀가 선택할 방법은 많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죽을 생각으로 길을 나선 처녀는 첩첩산중에 이르렀습니다. 산 속에서 길을 잃은 처녀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신세가 서러워서 바위 밑에 앉아 한참을 울다 물에 빠져 죽으려고 폭포수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 가만히 처녀의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처녀는 자기를 잡아먹는 줄 알고 놀랐으나 호랑이는 등을 돌리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처녀는 올라타라는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호랑이는 나는 듯이 달려 한걸음에 처녀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죽은 줄 알았던 처녀가 살아 돌아왔다고 놀랐습니다. 처녀는 호랑이가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 죽으려는 마음을 고쳐 먹었지만 그래도 홀아비에게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마침 그 집에 어떤 총각이 왔고 그 총각의 사주를 보고 처녀는 총각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노래가 생겼습니다.

노랑 저고리 진분홍 치마 받고 싶어 받았나
우리 부모님 말 한마디에 울며 불며 받았지

친정 부모에 대한 원망

이렇게 힘든 시집살이를 살다보면 답답하고 하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늘을 향해, 혹은 친정 부모님을 향해 원망하는 소리도 해봅니다. 

우리부모가 날 가질적에 고비 고사리 잡셨소
왜요리 살기가 고생시럽소



노래를 부른 사람은 고비와 고사리의 생김새를 비유해 자기 삶의 고단함을 빗대어 표현하였습니다. 산에 흔히 자라는 고비나 고사리의 굽은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반듯하게 쭉 뻗은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한 길인 것처럼 여겨져 한탄하는 것입니다. 꼬불꼬불한 길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도 멀리 돌아갑니다. 편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힘겹고 험난한 길의 모습이 내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에 여성의 일생을 비유하는 여성적인 감수성이 돋보이는 노래입니다.

📖 맹진사댁 경사

〈맹진사댁 경사〉는 1943년에 오영진이 지은 희곡입니다. 원래는 시나리오 형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후에 2막 5장의 희곡으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1957년에 〈시집가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되기도 하였으며, 아직까지도 꾸준히 공연이 되고 있습니다.

작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사를 돈으로 산 맹진사는 자신의 딸 갑분을 행랑방만 40칸인 권세 높은 김판서댁 아들 미연과 혼인시키려 합니다. 양반집 자제라 맹진사는 선도 보지 않고 택일도 하지 않은 채 결혼을 시키려 했습니다. 김판서의 세도와 덕을 보려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매매혼이라고 욕을 해도 맹진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분과 정혼하게 된 김판서댁 아들 미연이 계교를 꾸며 자신을 못생긴 절름발이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러자 맹진사는 그의 딸을 피신시키고 대신 종 이쁜이를 신부로 가장시켜 결혼을 시키려 합니다. 그런데 혼례식 날, 걸어오는 신랑의 걸음걸이가 멀쩡하자 혼사는 뒤죽박죽이 되어 버립니다. 권력과 재물을 탐하다가 결국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고 마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내용입니다.

〈맹진사댁 경사〉는 한국의 양반사회를 배경으로 가문의식의 허실, 구습결혼제도의 모순, 전통적 계층사회의 비인간성 등을 풍자함으로써 사랑의 참뜻과 인간성의 회복을 강조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댁이 가난해서 순가락조차 부족하거나 시어머니의 구박이 매우 심한 경우에도 옛날 여성들은 신랑이 곁을 내주거나 마음을 알아주면 참고 살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 노래에 나오는 신랑은 그마저 마음 붙일 곳을 없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그러한 집으로 물정 모르고 시집을 보낸 친정 부모에 대한 원망이 묻어납니다.

전통사회에서는 혼인을 할 때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부모가 정해주는 집안의 얼굴도 모르는 배우자와 혼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중간에서 매파 역할을 하는 중신애비(쥬애비) 등이 정보를 잘못 주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맹진사댁 경사’ 📖와 같은 연극을 보면 잘 나타나 있지요. 그러니 먼저 시집온 아낙들은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정선이 좋다해도 딸주지 마라
사절치기 강냉이밥 먹다가 어금니 다 빠졌네



앞에서 옛날에는 정선을 무릉도원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 노래에서는 무릉도원도 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사절치기나 강냉이밥은 모두 딱딱해서 이를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산지 지역의 정선 땅에서는 쌀은커녕 강냉이밥이나 수수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것이 소원입니다.



고단하고 끝없는 노동

그렇다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비료도 없고 제초제도 없으니 척박한 땅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확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니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앞서 말했듯이 일상적으로 배부르게 식사하는 일은 대부분의 백성들에게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대가족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식구들이 많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지게가 마치 등에 원래 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당연한 일로 여겨 집니다. 나이가 들면 쉬면서 자식들이 해주는 밥을 먹으면 좋겠지만 상황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노동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요즘의 지게가 나하고 인연이 되었나
육십년이 지나나서도 맨날 저달라네



육십년을 매던 지게니 지게가 말이라도 알아들을까 싶어 지게에다 푸념을 합니다. 하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육십평생을 노동하며 지친 몸과 마음을... 다른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기는 마찬가지였으므로 내 등에서 함께한 지게에다가 푸념을 하는 수밖에요.



김득신, <강상회음>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이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는 요즘 일요일에 쉬듯이 예전에도 고된 노동의 중간에 쉬는 날이 있어 한숨을 돌리고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편하게 노는 것이 아니라 어찌다 노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열심히 일할 생각을 다지면서 노래합니다.

우리가 놀면은 날에날마다 놀겠소
오늘같이 좋은날에 요까지만 놀시다



열심히 일하고 또 쉬기도 하면서 인생은 흘러갑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돈이 많다하여도 나이 들어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의 흐름에 따른 삶의 허무를 느낍니다.



변함 없는 자연과 변화 많은 인간

고추밭은¹ 늙어갈수록 이쁘기만 한데
우리네 인생은 늙을수록 추리하기만 하네



인간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 점차 늙어져 보기 싫은데 이 노래에 나오는 고추는 시간이 지나면 예쁜 빨간색으로 변화합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은 같은데 고추의 예쁜 색과 인간 삶의 노쇠를 대조해서 아쉬워합니다.

앞 남산 참깨꾸기는 초성^{初聲}²도 좋다
새 살적 들던 목소리 변치도 않았네



깨꾸기의 소리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 살 적 들던 깨꾸기와 지금 듣는 깨꾸기는 같은 깨꾸기가 아닐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깨꾸기의 소리는 변함 없이 똑같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에서는 변치 않은 깨꾸기의 소리에 비하여 우리 인간의 유사함에 대해 애달파하는 것입니다.

1. '고추밭은'이 맞는 표현이나 운율 때문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2. 첫 소리



명사십리¹ 해당화는 명년이나 피지만
한번가신 우리님은 언제나 오나



자연은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해당화는 가을에 사라지지만 다음해 봄에 다시 피어납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겨울을 견뎌내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변치 않는 자연은 우리 시나 노래 가사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사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앞 남산의 실안개²는 산허리를 돌고요
정든임 두팔은 내허리를 감는다



자연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됩니다. 앞산을 휘감아든 실안개를 보니 정든 임이 몹시 그립습니다. 마치 실안개가 정든 임의 팔 같고 앞산은 자기 자신만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뜻함이 묻어나는 노래입니다.

1. 함경남도 원산에 걸쳐 있는 모래톱으로 곱고 부드러운 모래와 해당화로 인한 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합니다.
2. 띠 모양으로 넓게 산중턱에 걸쳐 있는 안개

사랑의 노래 정선아리랑

요즘 노래들은 사랑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주면서 동시에
아픔을 주기도 하죠.
정선아리랑에도 오늘날과 같이 사랑에
관한 노랫말들이 많이 있나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사랑이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연히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달의 모양 변화



지구에서 보았을 때



사랑, 사랑, 사랑

정선아리랑은 삶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삶에 사랑과 애정이 기본이라면 당연히 정선아리랑의 노랫말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 중 아래 노래는 가장 뛰어납니다.

반달 같은 두 얼굴을 마주대고 보니
세 살 적에 만나지 못한 게 후회로구나



지금 만나서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나머지 세 살 때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세 살이라는 나이는 이제 겨우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지하는 나이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지하는 나이이므로 그 때 만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는 것이지요. 또한 반달 같은 두 얼굴을 마주 한다는 것도 의미가 깊습니다. 반달을 두 개 합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온달, 보름달 ㉠ 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온전한 하나의 원을 이루는 것을 은은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 살 적에 만나는 것은 과장되게 표현한 것이며 현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점에서 노래 부르는 이가 상대방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맘이 내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 선덕여왕과 지귀

신라 선덕 여왕 때에 지귀^{지귀}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지귀가 지나가는 선덕 여왕을 보고 단번에 여왕을 너무 사모하게 되어 결국 미쳐버렸습니다. 선덕여왕이 절로 행차하던 날, 골목에서 지귀가 선덕 여왕을 부르면서 나오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지귀가 자기를 따라오도록 하였습니다. 여왕이 절에서 부처에게 불공을 올리는 동안 지귀는 절 앞의 탑 아래에 앉아서 여왕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왕은 불공을 마치고 나오다가 탑 아래에 잠들어 있는 지귀를 보았습니다. 여왕은 잠든 지귀를 가엾다는 듯 바라 보다가 팔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풀어 지귀의 가슴 위에 놓고 가버렸습니다. 잠이 깬 지귀는 가슴 위에 놓인 여왕의 금팔찌를 보고는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곧 불씨가 되어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올라서 지귀의 몸을 태워버렸고, 결국 지귀는 불귀신이 되어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 화타

중국 후한 때의 전설적인 명의^{名醫}입니다. 마취제를 이용한 전신마취법을 창안하여 외과 수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삼국지연의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손권의 부하였던 주태가 온 몸에 창을 맞아 위급하자 하루 종일 수술을 하여 완치시켰으며, 관우가 어깨에 독화살을 맞자 어깨뼈에 묻은 독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조조는 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조조의 머리를 수술하려고 하다가 살해하려한다는 의심을 받고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 편작

중국 주나라 시대의 명의^{名醫}입니다. 꾀나라 태자가 병에 걸려 거의 죽은 것으로 여겨졌을 때 그가 치료하여 소생시켰다는 이야기가 유명하며, 춘추오패의 한 명인 제나라 환공의 안색만 보고 그 병의 원인을 알아냈다고 합니다.

혼자 하는 사랑, 상사병

나를 좋아하지만 내가 별로인 경우도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상황은 애달프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깊어지면 몸으로 반응이 나타나 병이 들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상사병이라 부릅니다. 짝사랑이 아주 심하게 되면 생기는 병이죠.

상사병에 관한 이야기나 노래는 우리나라에 예로부터 많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선덕여왕과 지귀 ㉮의 이야기부터 많은 시가 작품의 내용이 가슴 속에 응어리진 사랑의 감정에 대해 노래합니다.

우리 둘의 불붙은거는 꺼줄사람 없지만
만첩청산에 불붙은거는 소방대나 끄잖소



그때 당신을 사모하다가 골수에 든 병이
화타 ㉮ 편작 ㉮ 치료한들 일어날쏘나



공동묘지 장성백이¹야 말 좀 물어 봄시다
임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몇이나 되느냐



1. '장승배기'의 토박이말

장승

장승은 마을 또는 절 입구 혹은 길가 등에 세운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기둥입니다. 장승은 주로 마을의 이정표나 수호신 역할을 하며,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녀 한 쌍의 모양으로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으며, 남자는 머리에 관모를 썼으며, '천하대장군' 天下大將軍이라고 새겨져 있고, 여자는 관모가 없이 앞면에 '지하여장군' 地下女將軍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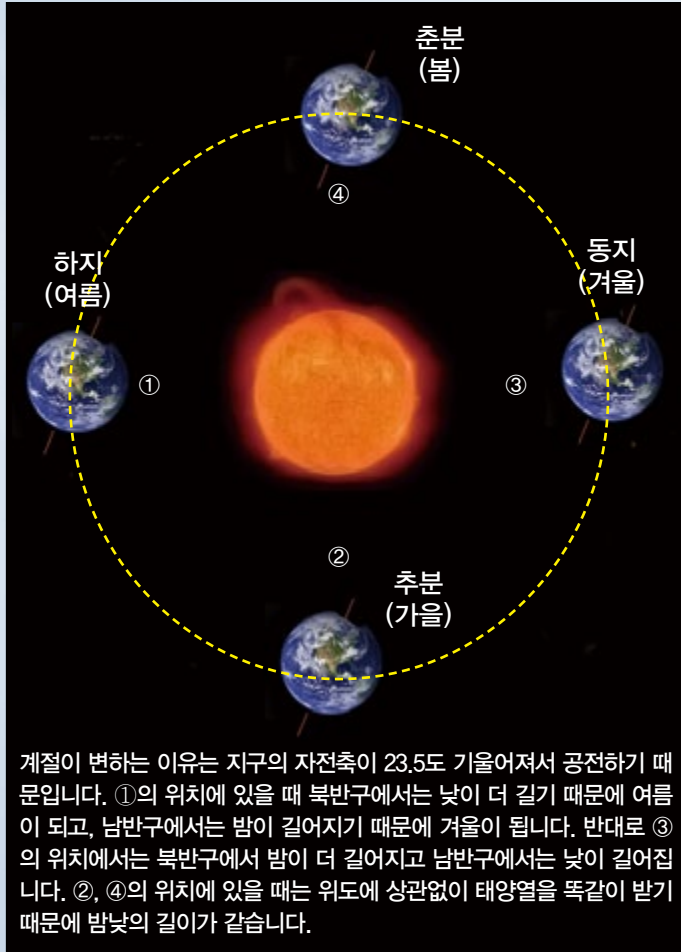


정선 아라리촌 소재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 속에 그리니 가슴이 답답해 미치겠고, 그것은 마치 가슴 속에 불이 난 것처럼 아프게 느껴집니다. 현실에서 눈앞에 보이는 불은 소방대가 와서 끄면 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열불은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끄는 방법도 모르는 것이지요. 당신을 사모하다가 그만 병이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낸다는 화타와 편작이 와도 이 병은 낫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병은 오로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약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작 사랑에 빠진 사람의 가슴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러다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애꿎은 공동묘지를 지키는 장승  에게 물어봅니다. 장승이 대답할리 없겠지만 사람을 그리워하다 죽은 사람이 아마도 세상에는 자신 말고도 분명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의 세 노래는 어찌 보면 상황이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꼭 죽을 만큼의 열렬한 사랑이 아니어도 사랑을 하는 당사자들은 당시에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느끼게 마련이고, 정선아리랑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진솔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면이고 뭐고 상관없이 나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민요의 본질이고 특징이고 또 색다른 매력이기도 합니다.

☞ 낮밤의 길이와 계절의 변화



눈먼 사랑, 죽어도 좋아

삼사월 진진해¹에 점심 굶구는 살어도
동지순달² 긴긴밤에 임그리워 못살어



이 노래는 다음과 같은 황진이의 시조를 생각나게 합니다.

동짓달 지나긴 밤을 한허리 버혀내어
춘풍 이불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밤에 굶이굽이 퍼리라

이 두 노래는 동짓달의 긴 밤 ㉠의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황진이의 시조는 우아합니다. 긴 밤을 잘라두었다가 임을 만나는 짧은 밤에 이어서 임과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을 깔끔하고 감칠맛나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선아리랑은 비유도 현실적입니다. 끼니를 해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점심을 굶다니요. 밥을 못 먹을지 언정 임과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은 밥보다도 임이 좋다는 뜻으로 내 생명줄이 밥이 아니라 임에게 달렸다는 암시입니다.

1. 진진해

2. 동지선달. 동지는 동짓달로 음력 11월이고 선달은 음력 12월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지선달은 겨울철을 의미합니다.



신윤복, 〈미인도〉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다음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님 얼굴에는 금보석이 박혔나
어두침침 야밤삼경^{三庚}¹에 간드레불²일세



얼마나 좋으면 임의 얼굴이 보석처럼 보일까요. 칠혹 같은 어두운 밤에도 임의 얼굴은 환한 빛이 납니다. 마치 어두운 탄광 안에서 밝게 빛나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게 정말 빛이 나서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보아서 그런 것이지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것은 ‘사랑에 눈이 멀었다’는 표현이 정답입니다.

1. 하룻밤을 오경^{五庚}으로 나눈 세 번째 부분으로 밤 11시에서 1시 사이입니다.
2. 간드레는 ‘칸델라’를 나타내는 말이며, 칸델라는 석유를 넣고 심지에 불을 켜는 손전등을 말합니다.

회자정리 거자필반 會者定離 去者必返

불교 경전인 '법화경(묘법연화경)'에 나오는 말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덧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회자정리라는 말은 '열반경(대반열반경)'에서도 나오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자인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3개월 후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예언하시자 아난존자가 슬퍼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빠짐없이 덧없는 것이니, 은혜와 애정으로 모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하기 마련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러한 것인데 어찌 근심하고 슬퍼만 할 수 있겠느냐.”

이에 아난은 계속하여 눈물 흘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나 인간에서나 가장 높으시고 거룩하신 스승님께서 머지 않아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제가 어찌 근심하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눈을 잃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자비하신 어버이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아,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비록 내가 몇 십억 년 동안이나 이 세상에 머문다 하더라도 결국은 없어지게 마련이다. 인연으로 된 모든 것들의 원래 성질이 그런 것이다.”

회자정리 거자필반에 대한 내용은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도 나옵니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갈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서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찢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건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둥니다.

내키지 않는 이별

세상의 인연은 회자정리 거자필반 回라고 하지요. 만나면 이별하게 되고 이별했다가도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오한 진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가슴은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나니 이제는 이별이 두렵습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바람이 불까 염려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정 떨어질까 염낼새



간다는 갈 거*자는 당신이 가져 가시고
온다는 올 래*자는 내게 두고 가세요



고요한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새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합니다. 곧 불어 닥칠 바람은 편안한 휴식을 방해할 테지요. 그러나 쉬면서도 바람이 불지 않았으면 하는 걱정을 합니다.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헤어지는 것은 되도록 오래오래 미루고 싶습니다. 바람을 염려하는 새에 빗대어서 자신들의 사랑을 염려합니다. 여기에는 오래도록 인연을 이어가고픈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별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 현실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변심은 가슴을 후비는 듯 아픕니다. 나는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은 점점 길어져만 갑니다.

개구장가¹에 포름포름에² 날가자구 하더니
온산천이 아우러져도 종무소식³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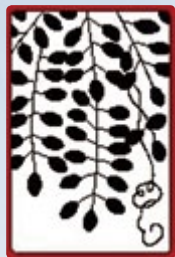
시냇가에 포름포름에 오신다고 하더니
온산초목이 어우러져도 오실줄 몰라



개구장가가 포름포름한 것은 봄이 시작될 무렵입니다. 만
물이 소생하는 봄이 오고 나의 사랑도 함께 왔습니다. 그러
면서 사랑의 약속을 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눌 것을 맹세합
니다. 그런데 야속한 임은 이후에 소식이 없습니다. 봄에 지
키고자한 약속은 산천초목이 왕성한 한 여름이 지나도 지쳐
지지 않습니다. 체념과 푸념, 원망이 한꺼번에 녹아 있는 노
래입니다.

-
1. 도랑 등과 같은 작은 개울의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토박이말
 2. 푸르스름해질 때에
 3. 원래 '종무소식'終無消息이 옳은 표현으로, 끝내 소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흑싸리 껍질



흔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하찮은 것을 일컬어 '흑싸리 껍데기' 혹은 '흑싸리 쪽데기'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에서 흑싸리는 12종의 화투패 중에 한 종으로 4월이나 숫자 4를 의미하며 그 중에서 껍데기는 광이나 띠, 동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패를 말합니다. 원래 화투는 일본의 카드로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최초로 일본에 전래된 서양의 카드(포르투갈어 카르타 Carta)에서 유래되었으며, 여기에 일본에도 시대의 풍속화가 결합되었고, 이후 19세기 경에 우리나라로 전해져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흑싸리는 이름은 싸리이지만 사실은 '싸리나무'가 아닌 '등나무'입니다. 일본에서 등나무는 계절을 나타내는 말 중에 하나이며, 초여름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홍싸리와 모양이 비슷하고 색깔이 검은색이어서 흑싸리라고 불립니다.

공산명월



화투패에서 공산은 8월이나 숫자 8을 의미하는 패들이며 그 중에서 공산명월은 광이 라는 한자가 쓰인 패를 말하며

화투놀이에서는 좋은 패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원래 공산명월(空山明月)은 사람이 없는 적적한 산에 떠있는 밝은 달을 의미하는 한자어입니다. 이와 같은 풍경은 황진이의 시조에서도 나옵니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을 자랑마라
일도창해(一日滄海)하면 돌아올 수 없나니
명월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쉬어간들 었더리

다시 보아도 내 사랑

그렇다고 내가 사랑한 임을 함부로 생각하기는 싫습니다. 흔히 말하는 화투장에 빗대어 혼잣말을 해봅니다.

당신이 나를 알기를 흑싸리 껍질  로 알아도
나는야 당신을 알기를 공산명월  로 알아야



흑싸리 껍질은 화투를 칠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패입니다. 제일 먼저 버려지는 패이죠. 임은 나를 그렇게 버리는 패처럼 함부로 대하여도 나는 임을 공산명월로 안다는 어찌 보면 자신의 자존심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공산명월은 화투패에서 가장 높은 광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떠나야 합니다. 아니면 나를 두고 떠나는 임도 이런 생각을 하며 앞남산을, 뒷산을, 산고개를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산천이 고와서 되돌아 왔나
임살던 곳이(라) 되돌아 왔지



떠나는 마을은 임이 있거나, 임이 먼저 떠났을지도 모르는 곳입니다. 어쨌거나 산마루 고개언덕에 올라 마을을 돌아보는 것은 마을이 예뻐서, 산색이 고와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임과 나누었던 추억이 있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날버리고 가시는 그대가 가고 싶어 가나



일락서산^{日落西山¹}에 지는 해는 지고싶어 지나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가고 싶어 가나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하늘에는 태양이 매일
떴다가 집니다. 한 번도 어김이 없습니다. 어느 날은 태양이
지상에 어느 곳이 맘에 들어 조금 더 머물다 가고 싶어도 태
양은 하늘의 정해진 이치에 따라 반드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에 빚대어 사랑하는 사람 역시 맘이 변
해서 내가 싫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태
양이 가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임 역시 떠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이라 생
각했습니다. 사실 태양이 무슨 마음이 있겠으며, 태양이 이
지상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들을 설정하여 이별의 아픔을 스스로 위로하고 이러한
노랫말을 지어 부름으로써 다른 많은 슬픈 연인들을 위로한
것입니다.

1. 해가 지는 서쪽 산

무릉도원을 그린 정선아리랑

정선 지역의 옛 이름은 '무릉도원'이라
할 정도로 정선의 자연은 수려합니다.
정선아리랑에 나오는
유명한 곳은 어디인가요?

정선아리랑은 오랜 역사 동안
삶을 통해 불려졌기 때문에
가리왕산, 화암약수, 민둥산 등
오늘날 정선군 내 유명 관광지들이
정선아리랑 속에 녹아있습니다.

가리왕산

정선군 정선읍과 북평면, 평창군 진부면과 대화면 사이에 있는 해발 1,560m의 산입니다. 가리왕산은 고대에 춘천 지방에 있었던 맥국 緇國의 갈왕 葛王(또는 가리왕 加里王)이 이곳에 피난하여 궁궐을 짓고 머물렀다고 해서 갈왕산이라고 부르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전설을 입증하듯이 장전리에는 궁궐터가 남아 있습니다. 산의 모습이 큰 가리(버나 나무를 쌓은 더미)와 같다고 하여 가리왕산으로 불린다는 설도 있습니다.



가리왕산 이끼계곡

산이 험한 정선이라서 정선아리랑에는 고개가 많이 나오니다. 산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이니 당연합니다.

가리왕산  갈가마구는 까왁까왁 짓는데
낭군님 병색은 점점 깊어간다



비행기재¹ 말랑이² 자물쇠 형국인지
한번만 넘어오시면 넘어갈 줄 몰라요



가리왕산 고개는 평창군 진부에서 내려올 때 넘어오는 고개이고, 비행기재는 평창군 미탄에서 넘어오는 고개입니다. 정선을 넘어올 때는 광산에서 돈만 벌면 다시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넘어왔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병마져 든 상황입니다. 비행기재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높은 고개는 다시 넘어갈 수 없어 저 건너 세상은 먼 이상향이 되었습니다.

1. 평창군 미탄면 백운리 백골에서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사이에 있는 고개
2. 산마루

화암약수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화암 1리에 있는 약수로서 경치가 좋아 이곳을 찾는 사람은 규모가 작을 뿐 설악보다 월등하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약수 또 한 신비스러운 맛과 절묘한 효험이 있는 영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수 1910년경 문명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습니다.

문명무라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있었지만 마음씨가 착하고 인품이 좋아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당시 마을의 면장이었던 최 명집이라는 사람이 놀러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날 밤 주인 문씨의 꿈에 구슬봉 높은 바위 아래 돌연히 청룡과 황 룡 두 마리가 서로 뒤틀려 엉키어 몸부림치더니 하늘로 높이 올라갔습니다. 깜짝 놀라 잠의 깬 후 곰곰히 생각해 보니 심상치 않아서 자기에게 횡재할 기 회를 하늘이 알려 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새벽녘 남 몰래 그곳에 이르러 보 다지가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땅을 파니 땅속에서 물이 거품을 뿜으 며 솟아났습니다. 당황한 문씨는 최씨를 깨워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이 물이 온천이 아니면 약수라고 여겨서 물에 입을 대보니 마치 계피가루를 탄 것처럼 씹쓸하면서도 시원하여 운모에 힘이 솟아 이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 다. 화암약수는 위장병, 빈혈 등에 매우 영험스런 효능을 나타내 주위 사람 들은 문씨가 평소에 어질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이 부귀를 누리지는 못하 였지만 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게 된 것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구슬동^{九瑟洞}¹ 화암약수는 신비도 하구나
마시기만 하려는 만병통치라네



석간^{石間}²에 뽕뽕쓔는 화암의 약수는
마시기만 하려는 불노장생 한다네



화암약수 泉 는 탄산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 약효가 좋다고 합니다. 1910년경 문명무라는 사람이 꿈에 청룡과 황룡이 엉키어 승천하는 것을 본 후 이 약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음씨 나쁜 사람이 이 약수를 마시려 하면 물 안에 구렁이가 꼬리를 틀고 있는 형상이 보여서 물을 마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에 있는 지명으로 옛날 비파를 가진 아홉 선녀가 풍악을 울리면서 놀던 곳이라하여 붙여진 이름
2. 돌 사이에

☞ 임계 구미정

남한강 상류인 임계천 변에 위치해 있는 구미정은 조선 숙종 때 사정^亭공 조참의를 역임한 이자 선생이 정선에 내려와서 지은 건물입니다. 이 정자를 중심으로 주위의 경치가 아홉가지 특색이 있다고 하여 이러한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미정은 단층 목조건물로 팔작기와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초석에 사각 기둥을 세우고 장 마루를 설치하였습니다. 고적대를 바라보는 암석 위에 주변의 경치를 전망할 수 있게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건축하였으며, 정자 내부에는 2칸에 걸쳐서 온돌 바닥의 벽체가 있는 방을 둔 보기 드문 양식이었지만, 지금은 벽체가 없고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아궁이와 굴뚝이 측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의 출입문 위에 구미정 현판이 걸려있고 방 외부 우측에 구미 십팔경^{九美十八景}의 목록이 적힌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변부기¹ 산등에 이밥취 곤드레 내 연설을 들어라
총각 낭군을 만날라며는 해연연이 나거라



남면 한치에 있는 변부기 산봉우리는 취와 곤드레 등 옛날 사람들이 즐겨 먹었던 나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아가씨가 나물을 뜯으러 산 중허리로 왔습니다. 연애는 하고 싶은데 총각을 만날 일이 까마득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나물에게 연설을 하겠습니까? 하라는 나물은 하지 않고, 한 손에는 광주리를 끼고 나물에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태백산은 으뜸이요 소백산은 국립공원
오대산은 월정사 노지산은 이성대
사대산은 오장폭포 석등산은 이별문
중봉산은 장чан성 고양산은 대철쭉
두루 살펴봤더니

임계 구미정 ☞ 송천 아우라지 안볼 수 있나



이 노래는 정선 근처의 이름난 아름다운 곳들을 뽑아서 엮음으로 만든 노래입니다. 멀리 태백산부터 정선의 명소인 구미정과 아우라지까지 모두 등장합니다. 한번 가보면 정선아리랑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같이 한 번 가볼까요?

1. 정선군 남면 유평리 한치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

삶의 애환을 나타내는 아리랑 고개

아리랑의 후렴에는 고개가 나옵니다.
정선아리랑 말고도 모든 아리랑에는
고개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고개는 어디에 있는 고개일까요?

아리랑 고개는 현존하는
특정 지명이라기 보다는
삶의 애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서울 정릉고개

고개에 대한 다양한 해석

정선아리랑에는 고개가 유난히 많이 등장합니다. 정선아리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리랑에는 고개가 항상 등장합니다. 노랫말에도 나오고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하는 후렴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예부터 학자들은 그 고개가 어느 고개인가, 어디에 있는 고개인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경복궁 중수 당시 아름드리나무를 매고 넘던 정릉고개 ㉠은 아리랑고개로 이미 널리 알려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경의 새재 ㉡를 아리랑고개라고도 하는 등 아리랑으로 유명한 지역들에 서는 저마다의 아리랑 고개가 있습니다.



경북 문경새재

정선 일대의 주요 산과 고개



고개너머 존재하는 아라리의 고향

정선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 고개 ㉠을 넘어야 합니다. 진부에서 내려오는 59번 국도도 고개를 넘어야 하고 미탄에서 넘어오는 38번 국도도 고개를 넘어야 합니다. 예로부터 정선 땅은 고개를 넘어야만 들어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선 땅만 그럴까요. 백두대간에 위치한 아라리의 고향들은 대개 모두 그러합니다. 높은 고개 마루에 마을을 형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높은 고개라도 그 안의 아늑한 평지를 찾아서 사람들은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라리의 고향은 모두가 고개 너머 존재합니다.

아리랑 고개다 정거장 짓고
오시는님 가시는님 쉬었다가 가세요



정거장이나 주막집은 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입니다. 고개야말로 이 마을과 저 마을, 이 고개와 저 고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고개 위에 서낭당을 모셔서 오가는 사람들의 평안을 빌기도 했지요.



삶의 애환, 고개

고개를 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자동차가 보급되기 이전에는 모두 걸어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지체 높으신 분들은 가마를 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로지 자신의 다리에 의지해 걸어 다녔습니다. 과거를 보러가는 선비, 물건을 팔러 다니는 등집장수, 소식을 알리러 다니는 사람들 모두가 말입니다.

아리랑 고개는 웬고개나
넘어가고 넘어올 적에 눈물만 흘리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현실적인 고개는 발로 걸어 넘어야하는 육체적 고통을 나타내며 특정한 장소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개는 상징적으로 삶의 역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리랑 고개를 넘을 때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절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고 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접 아라리를 부르면서 설명하신 어르신은 아리랑에 나오는 고개는 삶의 애환 고개라고 합니다.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는 바로 이 삶의 역경을 아리랑을 통해서 무사히 넘게 해달라는 바람인 것입니다.

삶의 지침서 정선 아리랑

‘아리랑고개’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군요. 그렇다면 많은
아리랑 중에서 특히
정선아리랑을 삶의 지침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선아리랑에는 우리 삶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기도 하고
동시에 아프고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자혜와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웃음으로 눈물 닦기

울어서 될 일이라면 울어서나 본다지
울어서도 안 될 일인데 웃어나 볼까



정선아리랑의 노랫말 중 하나입니다. 민요를 부르며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번 웃어보는 것입니다. 웃으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보이지 않던 해결책이 보이기도 하지요.

우리 민족은 ‘웃음으로 눈물 닦기’가 잘 어울립니다. 오열하며 눈물을 쏟아내면 감정이 정화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빠져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얼른 눈물을 닦고 환하게 웃을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죠. 내 삶이 고달파도 남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비극과 희극이 엉켜있는 까닭입니다.

인자에 감화된 도적

조선 효종 때 정선군 화암면에 전생원^{전생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만 전념하고 벼슬할 생각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살림이 매우 빈곤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혼처가 정해진 나이 든 딸이 있었는데 혼수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에게 소 한 마리를 빌어 이를 팔아서 혼수 비용에 쓰려고 정선읍에 소를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전생원은 우장에 나가 소를 팔고 그 돈을 지니고 해질 무렵 사람이 없는 신월리 옛 재에 이르렀습니다. 숲이 울창하여 낮에도 혼자 다니기 무서운 곳이라 마음을 굳게 먹고 고개마루를 막 넘으려 할 때 한 괴한이 나타나 돈을 몽땅 내놓으라고 위협하였습니다.

“내 수중에 소 한 마리 판 돈이 있기는 하나, 이는 내 딸자식 혼수 장만을 위하여 절친한 친구의 소를 빌린 것이니 사정을 좀 봐 주시오”

전생원은 이렇게 말하며 사정을 하였지만 도적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생원은 여러 번 사정하였지만 결국 도적에게 소 판 돈을 몽땅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때 화암면에 갔다 돌아오던 순라장교 일행이 당도하여 괴한을 순식간에 포박하고 약탈한 돈을 다시 전생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할 전생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내 돈을 빼앗으려 한 게 아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꾸어 쓴 돈을 갚지 못하였다가 오늘 장터에 함께 갔었는데 내가 소 판 것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소. 마침 딸 시집보낼 혼수 준비에 써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욕심 각신했던 것이니 저 사람은 도적이 아니요.”

그러자 순라장교는 도적을 풀어놓고 돌아갔습니다.

도적은 전생원에게 이 은혜는 평생을 갚아도 못 갚을 것이라며, 전생원을 이곳에서 모시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결국 전생원은 그를 데리고 돌아와 이웃하며 형제같이 화목하게 살았으며 도적은 전생원에게 감화^{感化}되어 선량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 다스리기

이렇게 정선아리랑은 삶의 지혜로 가득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는 게 무엇인지 우리 조상들의 영특함과 슬기로움이 소리에 묻어 있습니다.

부처님만 믿는다구 극락을 가나
마음이 고와야 극락을 가지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당에 가기 위해서, 열반에 들기 위해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종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위 노래는 따끔하게 한 마디 합니다. 다 소용없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올곧게 쓰는 것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고, 좋은 집안에서 자라고,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은 것보다 자기 한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집살이를 하거나 고된 노동을 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병
을 앓는 등 삶의 굴곡들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리
랑은 아리랑 세상을 꿈꿉니다. 정선아리랑 한 마디면 땀
뼘 속도 풀리고 속상했던 마음도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
까 텅더꿍! 아리랑 한마디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이 얼마나 좋은지
밥꾸다 말고서 어깨춤 춘다



정선같이 살기 좋은곳 놀러한번 오세요
검은산 물밀이라도 해당화가 핍니다



정선 아리랑 더 알아보기

1. 정선아리랑 관련 도서 및 논문
2. 정선아리랑 악보

정선아리랑 관련 도서 및 논문

1. 도서

정선아리랑의 연구 (1988)

강동학 저, 집문당

정선아리랑에 대한 최초의 전문적인 책이다. 정선 지역을 직접 답사하여 채록한 자료를 통해 가사의 생성과 구연 양상을 자세히 연구하였다. 아리리 노랫말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되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보자.

정선아리랑 (2004)

진용선 저, 집문당

저자는 오랫동안 정선아리랑에 대해 전승, 교육, 홍보하는 데 앞장서 왔다. 이 책에는 정선아리랑의 배경, 자리매김, 가사와 내용, 확산, 전승 현황 등이 나타나 있다. 정선아리랑에 대한 그동안의 여러 설명과 논의들을 저자의 관점으로 잘 정리한 책이다.

정선아리랑의 존재양상과 연구시각 (2009)

강동학 편, 정선군

이 책은 제목 그대로 기존의 정선아리랑에 대한 연구를 크게 내부와 외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그간의 연구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내부 국면에는 정선아리랑의 생태론적 연구, 연행의 양상과 원리 연구, 가사의 형식과 내용 연구, 음악학적 연구, 소비 양상과 문

화상향 연구 등으로 나누어 정선아리랑의 존재 양상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살폈다. 이어 외부 국면으로는 다른 노래와의 비교 연구, 자료수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전승과 현재화 연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정선아리랑의 외부적 상황에 대한 검토도 마쳤다. 여기에는 각각 몇 편의 논문들이 세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정선아리랑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으로 깊이 알아보고 싶다면 이 책이 적합한 것이다.

정선아리랑 소리꾼의 삶과 아리랑 (2009)

진용선 저, 정선군

정선아리랑에 대한 책은 많지만 소리꾼의 삶을 정리한 책은 드물다. 저자가 아니면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와 내용을 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선아리랑을 전승하는, 전통을 이어가는 정선아리랑 소리꾼들의 삶을 잘 보여준다. 아리랑에 청춘을 바친 이들의 삶이 빛난다.

정선아리랑 (2010)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 책은 진용선 편저, 2003년 정선아리랑 가사집을 보충하여 새로 발간한 정선아리랑 가사집이다. 기존에 나온 29권의 노래책을 정리하여 정선아리랑 가사를 총망라하였다. 가나다순으

로 정리하여 첫머리만 기억한다면 노래를 찾을 때 유용하다.

정선아리랑의 역사성 및 시원성 정립 (2011)

김대행 외 6인 공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정선아리랑의 역사성으로부터 한민족 아리랑의 시원사를 증명하고자한 국문학, 민속학, 음악학, 문화인류학 등의 학제적 연구물이다.

2. 논문

「정선아리랑의 謠詞에 관한 연구」, 『관동향토문화연구』 2-3 (1978-9)

서병하, 춘천교대 관동향토문화연구소

「‘아리랑’謠의 民族謠化要因 分析研究」 1-5, 『관동향토문화연구』 6-10 (1988-1992)

서병하, 춘천교대 관동향토문화연구소

이 7편의 논문은 정선아리랑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정선아리랑이 우리나라 아리랑의 모태인 점과 아리랑이 민족요화, 즉 제2의 국가 역할을 하게 된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아리랑 소리의 근원과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 5 (1997)

이보형, 한국민요학회

이 논문은 강원도의 아리랑이 어떻게 서울 경기 지역으로 유입하여 우리가 지금 부르는 아리랑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논의한 글이다. 무엇보다 음악학적 접근으로 논의를 진행하여 현재 아리랑소리의 확산에 대한 정설로 여겨지고 있다.

정선아리랑 표준 악보

정선아리랑 - 긴아리랑

♩ = 50

눈이올 라나 비-가 올 -라나 -- 억수 -장마-질라-- 나 - - - - -
 정선갈 - 이 살-기 좋 -은곳 -- 놀러 -한번-오세-- 요 - - - - -
 맨드라 - 미 줄-복 송 -아는 -- 토담이 붉어-종구-- 요 - - - - -

만 수 - 산 검은구-름 이 --- 막모 -여--든--- 다 - - - - -
 검은 - 산 물밀이-라 도 --- 해당 -화가-핀니-- 다 - - - - -
 앞 남 - 산 철쭉꽃--은 --- 강산이 붉어-종--- 다 - - - - -

아 리 -- 랑 - 아 리 -- 랑 - 아 라 - 리 -- 요 - - - - -

아 리 - 랑 고개고 - 개로 --- 나를 넘겨-주 --- 게 - - - - -

												정선아리랑
太	아	備太黃備	아리랑	太	앞	검	만	林林 林林 林	맨드	정선	눈이	
太 仲	리	備		太 仲	남	은	수	산	라	갈	올라	
仲 △	랑			仲 △	산	산	산	미	이	나		
林林	고개	備太黃備	아리랑	林林	철쭉	물	검은	林仲	줄	살	비가	
林仲	고개	備		林仲	꽃	이	구름	林仲	송아	좋은	올라	
仲太黃備	로	△		仲太黃備	은	도	이	太黃備	는	꽃	나	
太太	나를	太	아리	太太	강산	해	막모	太太	토담	놀	억수	
太太	넘겨	太仲		太太	이	화	여	太太	이	한	장마	
仲太黃備	주	仲太備		仲太黃備	붉어	가	핀	仲太備	붉어	번	질라	
備	게	太	요	備	다	다	다	太	요	요	나	
△太黃備		仲太黃備		備△太黃				仲太黃備				

												진아리랑 노래보
--	--	--	--	--	--	--	--	--	--	--	--	-------------

긴아리랑 - 노래보

정선아리랑 - 엮음아리랑

우리댁의 서방님은 잘났던지 못났던지 없어 매고 짝어 매고

장치다리 곰베 팔이 노가 지나무 지게에다 엽전석냥 걸머 지고

강릉 삼척-- 에 소금 사러-- 가셨-- 는 데 -- -- --

백 봉-- 령 구비구-- 비-- -- 부디잘다녀--오세-- 요 -- -- --

아 리-- 랑 -- 아 리-- 랑 -- 아 라- 리-- -- 요 -- -- --

아 리- 랑 고 개고- 개로-- -- 나를 넘겨-주-- -- 게 -- --

[illegible]

[저자 약력]

유명희

- 문학박사, 강원도문화재전문위원.
- 한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동대학원 졸업.
- 논문 : 〈아기어르는소리연구〉, 〈아라리연구〉, 〈강원 지역 아라리 분포와 권역별 특징〉, 〈아라리 무대화에 따른 정서와 노랫말의 변이〉 외 다수
- 저서 : 농산노동요연구(공저), 한국의 웃음문화(공저), 한국역사민속학강의(공저) 등
- 한림대, 강원대, 강릉원주대 강사
- <http://www.facebook.com/whitewindwall>

지 은 이 | 유명희

소 리 | 김남기, 변춘자, 변의열

인 쇄 | 2012년 12월 24일

발 행 | 2012년 12월 30일

기 획 | (주) 바이람

편 집 | 육성수, 정민애

디 자 인 | 김금희

인 쇄 | 포유

발 행 처 | (재)정선아리랑문화재단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17

전 화 | 033-560-2595

팩 스 | 033-560-2921